朝鮮日報

新聞價 壹個月 八拾錢△三個月 貳圓四拾錢△六個月 四圓六拾錢△壹個年 九圓△地方必先金
廣告料 五號活字拾四字壹行 金壹圓△特別記事欄 金參圓
發行兼編輯人 金東成
印刷人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中國의 統一은 何時?

×

反覆無常하고 變幻莫測한 中國의 政情은 元來吾人의 推測과 億測을 許치안는바이다 그러나 이번大動亂의 뒷막음으로 天津에서 段、張、孫、馮等의 巨頭連이 會議를 開하고 統一의 大事를 完成하라한다한다

果然 이巨頭會議가 統一의 大業을 어느程度까지나 實現하며 가지고 어느時期까지나 持續이될는지? 또그러치 못하고 부질업는 禍亂을 이르킬는지? 저國民黨의 新進政治家들이 愚弄을 操縱하며 一面으로는 廣東의 孫中山과 策應하고 露使카라한氏와 暗托하야 一隅에 赤露의 政治組織—委員制를 採用하야 中國을 赤化하려는 運動이 자못 暗暗中에 熾烈한 모양인데 이것을 現下의 中國의 政情에 비치어볼때에 누구나 輕率히 可能을 말할수업는 것은 勿論이다 奉張의 武力과 反直諸軍閥의 虛勢와 頑固한 舊頭腦의 權謀家인 段等의 勢力을 能히 壓倒하고 저들의 高遠한 理想이 卽地에 實現되리라고는 미들수업는 것이다

오늘날 中國의 統一의 大業云云하는 것은 아름다운 空想이다 勢力과 黃金에 阿附追從을 일삼는 割據虎視하는 軍閥들이 잇는동안에는 또한 五萬萬에 갓가운 大民族을 包容한 統一的 大國家의 建立을 圖하는 것은 稚氣는 비웃이나 時代錯誤의 부질업는 夢想이다

民智가 蒙昧하고 思想이 幼稚한 時代에 도읍혀 이러한 大民衆을 完全히 包容한 國家가 업섯거든 하물며 自由의 精神과 平等의 思想이 澎湃한 今日에랴

要컨대 中國은 軍閥과 特權階級들의 爭鬪、軋轢、相殘이 쉬넘엄시 繼續되는동안에 오늘날에 부질업는 犧牲이되고잇는 大衆이 自覺하야 社會革命의 時期가 到來할것이다

吾人은 엇즐지안코 統一을 부르지지고 부질업는 勢力爭奪을 일삼는 反面에서 最後勝利의 武勇을 가다듬고잇는 新興階級이 中國을 救濟하게될것을 밋고자한다?

整理와 失業日本人

×

이번兩政整理의 結果淘汰를 當한 官吏들은 失業者가될것은 勿論인데 失業者가운데 朝鮮人과 日本人의 比例가 엇더케 되얏는지 아즉 發表치아니하엿슴으로 明言할수는 업스나

日前에 某大官은 이에 對하야 말하기를 『整理의 結果로 失業者가된 日本人이 內地로 도라가는 것은 무엇보다 遺憾이라 相當한 方法을 講究치아니하면 안되겟다고 하엿다』 아마 朝鮮人의 失業者가 더만흘터인데 거긔에 對해서는 一言半句가 업섯다 勿論 그럴일이지! 아무 또록 日本人은 한사람이라도 淘汰식히지 아니햇스면 第一上策이요 多少間 體面上으로 식힌다고하드래도 그사람들의 먹고살길을 만드러주면 그만이지 그러케 露骨的으로 朝鮮사람의 脾胃를 비틀것은 업는일이 아닐가? 朝鮮總督府政治가 日本人本位인것은 이것뿐아니라 每每事가 다ㅡ그러하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整理라는 精神이 財政緊縮에 잇는 것임으로 俸給만흔 日人을 만히 淘汰하엿스면 조흘것 가튼데 財政問題보다 民族觀念이 압장을 서서는 안될걸!

◇中國大動亂◇

巨頭會議悲觀
張、馮暗鬪漸次露骨
段氏도收拾이容易치못하리라

(天津發) 段祺瑞邸에서 開催한 巨頭會議는 政界의 問題、各自地盤의 問題에 就하야 容易히 意見이 一致되지 못하야 이미 張、馮間의 暗鬪가 漸次赤裸裸하게 된지라 段祺瑞도 目下와 如히 各巨頭의 意見이 區區하야서는 時局收拾이 容易치 못할지라 巨頭會議紛糾와 如히 同會의 前途、時局의 前途를 悲觀하는 者가 잇더라

結局은 三角政戰
馮、張싸홈에 孫文이 加入

(北京十二日發) 今回天津會議에 登場할 人物은 段祺瑞、張作霖、馮玉祥、孫文等 所謂四巨頭의 會議인데 人物이 人物인것만치 頗히 興味잇는 光景일터이다 如何턴 彼等은 實際로 國利民福을 許하야 高遠한 理想아래에 中國四百餘州의 統一을 計劃한다는데 實이나 此는 豫想하기 難하다 彼等은 單히 自己의 野心을 품고 自己의 利益을 謀計하는 以外 何等發見할것이 업다 다시 말하면 今次의 奉直戰의 原因도 그때문이며 馮玉祥의 望蜀의 妄念을 품은 一場演劇도 그때문일다 今回는 段氏의 仲裁로 表面만은 圓滿히 落着될터이나 數年을 不滿하야 亦是兵亂의 修羅場으로 될것이다 張氏는 此期에 在하야 直隷山東等各地方에 勢力을 扶殖할터이며 그리고 時가 來하고 期가 至하면 馮을 討伐할지며 一方馮은 吳의 沒落은 自己의 威力이라고 自滿自足하며 一方赤露와 連絡을 取하야 宣統帝를 追放하는 等擧動으로 推察하야도 彼는 今後赤化的政策에 傾할 것은 豫想하기 容易함으로 段을 中心으로 하야 張、馮의 勢力싸홈에 孫文이 加入하야 北京政界에 三角爭鬪最後의 爆發이 될터이라 이사이에 吳佩孚氏는 再擧의 時期를 待하지 안흘수업는 處地인데 以後의 中國은 最히 注意할만하더라

段氏主催 大演說會
全國代表參會

(天津十二日發) 十四日中國街安徽會館에서 段祺瑞主催의 大演說會가 開催될터인바 全國代表者도 參會할터인데 表面의 發起人으로서 張作霖、馮玉祥、盧永祥三氏連名의 通電을 發키로 되엿더라

馮玉祥의 行衛不明、
張作霖의 壓迫으로

(天津十二日發) 馮玉祥氏와 奉天軍司令官李景林氏과의 間에 直軍의 殘兵及鹵獲武器의 處分問題에 就하야 過般來確執을 가지고 잇던바 張作霖氏의 入津은 奉天派의 馮玉祥氏에 對한 壓迫이 益益猛烈하야 짐으로 馮氏도 其身邊에 危險이 切迫한 것을 感하고 遂히 十二日未明에 突然히 日本租界로 宿所를 移하고 行衛를 감추엇더라

直隷省長도 어대로갓다

(天津十二日發) 直隷省長王承斌氏는 曩者入津한 李景林氏의 壓迫과 省議會의 反對에 堪耐치못하야 十一日夜省長公署를 脫出하야 蹤跡을 감추엇스며 更히 天津에서는 奉天派에 對한 一般의 空氣가 漸次險惡하야 지는 中인데 馮玉祥、張作霖、盧永祥等三巨頭는 連名通電을 發하야 近近天津에서 各省代表會議를 開催하겟다 勸誘하얏던바 多數의 承諾書를 受하야 이미 入津한 者도 잇더라

吳氏離船南下
目的地는 上海方面인듯

【十三日奉天特電】 當地公報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吳佩孚는 十一日午前一時에 三隻의 運送船을 달이고 芝罘港外로부터 南下하엿다 그 所行은 上海라고도 或은 南京이라고도 하나 上海以南인것은 確實하다더라

段邸大宴會에 張作霖이 缺席
「各種臆測喧傳」

(天津十二日發) 十一日午後의 段祺瑞邸大宴會에 張作霖氏는 病이 잇다 稱하고 出席치아니함으로 各種의 臆測이 喧傳되나 그러타지 깁흔 理由가 잇는것은 아니라더라

奉軍二萬 現下天津에잇다

(天津十二日發) 目下天津에 잇는 奉天兵은 約二萬假量으로 各處에 分布될터이며 更히 十日夜八時부터 三回에 亘하야 奉天軍千五百名과 軍需品多數가 山海關으로부터 中央停車場에 到着하얏더라

奉天人民의 憂慮

(奉天電) 當地中國側의 富豪等과 知識階級은 天津會議의 前途를 憂慮하야 萬若馮玉祥과 破裂을 惹起하야 再次干戈가 相交되면 奉

奉軍南京攻擊準備
齊燮元防備軍派遣

(上海十二日發) 奉天軍의 精銳인 張宗昌의 軍隊(第三軍)는 九日以來繼續하야 天津으로부터 南下하야 山東省에 集中하는 中인데 右는 奉天軍이 南京攻擊을 開始할 準備인듯한지라 江蘇督軍齊燮元氏는 徐州鎭守使陳調元氏에게 此의 防備를 命하엿스나 陳氏의 態度가 最近 매우 曖昧하야 齊氏의 命令에 服從치아니함으로 齊氏는 第六師團을 急히 浦口에 派하야 防備를 嚴히하는 中이더라

張氏의 武備完成計劃

(奉天電) 張作霖은 奉軍今回의 勝利는 爲主히 武器의 精銳와 飛行機의 優秀함에 基因한것이라하야 戰後兵廠의 擴張을 開始하는바 此計劃이 完成하는 時엔 漢陽兵器廠에 一步도 不讓할만하게 되리라 하며 飛行機는 目下來奉하야 都『호텔』에 滯在中인 佛人『박ㅡ손』氏의 手를 經하야 購入한것만해도 五十臺에 達하얏슴으로 飛行機製作所를 設立할 計劃을 하야 此等이 完成하면 武備로는 中國一이 될터이라더라

新嘉坡海軍根據案
英新內閣再提案決定

(倫敦十二日發) 倫敦來電에 依하면 英國新內閣은 遂히 新嘉坡海軍根據地設置案을 再次提案하기로 決定하야 可及的早速히 此에 着手할 意嚮이라더라

佛國無政府主義團
西班牙에 侵入、革命運動

(마도릿드九日發) 西班牙政府는 『모록코』에서 이러난 士民叛亂의 結果 此를 鎭壓키 爲하야 莫大한 國帑을 投하야 多數한 兵士를 派遣하엿스나 容易히 鎭定되지 아니함으로 非常한 苦境에 陷한 中 今又佛蘭西內의 無政府主義者等이 西班牙의 『싼지카리스트』와 提携하야 革命運動을 惹起코자함으로 官憲은 極力此의 撲滅에 腐心하던바 八日 『팜푸로나』에서 佛國國境을 넘어서 侵入한 右無政府主義者等과 西班牙警官과의 衝突이 起하야 雙方에 共히 相當한 死傷者를 내이엇고 또 公報에 依하면 右衝突의 結果 警官二名、侵入者五名이 卽死하얏고 更히 警官은 侵入者二十七名을 逮捕하얏더라

英國前首相
南米에旅行

(倫敦十二日發) 英國前首相 『맥도날드』氏는 健康의 不良을 理由로 近近南米에 旅行할 計劃이라더라

伊國下院 再開되얏다
反對黨議員總缺席

(羅馬十二日發) 伊太利下院은 再開되엿다 그러나 反對黨全部와 共産黨에 反對하는 議員百五十名은 現首相 『무소리니』氏의 施政에 抗議하는 意味로 缺席하얏다 彼等은 今會期中은 繼續缺席하리라고 期待되얏스나 國粹黨議員三百名은 出席한 模樣이더라

가將軍의 引率團體
伊首相을 猛烈攻擊

(羅馬十一日發) 『못소리니』首相은 伊太利議會가 開會하라함에 當하야 『가리발지』氏의 所率團體에서 猛烈히 國粹黨行動에 對한 攻擊을 受하얏다 然이나 『못소리니』首相의 地位가 强固함으로 其成功을 遂行할것은 容易하다고 豫期된다더라

賠償委員會 改造發表

(巴里十二日發) 『도스』案의 結果 賠償委員의 職員을 減하고 各部局을 廢止하야 賠償委員會의

英內閣의 對露策은
徹底的干涉主義이리라
勞農外交委員치체린氏演說

(莫斯科十二日發) 勞農外務委員『치체린』氏는 昨年共産黨員의 會合에서 演說하야 英國新內閣의 對露政策은 徹底的帝國主義며 且干涉主義일것이라고 推測하야 英佛兩國의 兩勢를 利用하야 크게 得利코저하는 希望을 述하엿더라

莫斯科巴里間
航空郵便開始

(莫斯科十一日發) 莫斯科와 巴里間에 定期航空郵便이 開始되엿는바 其所要時間은 十九時間이라더라

世界財界는 將次活躍하리라

(紐育十二日發) 米國의 實業家요 又經濟學者로 有名한 『푸랑크、본다ㅡ릿푸』氏는 合同通信에 對한 寄稿中에 이제 內國的으로나 國際的으로나 異常한 財界의 活動期가 始作할것을 豫想하야 工業勞動의 勝利、活潑한 生産及需要、延하야는 米國市場의 活潑을 見할것이라하고 同時에 起來할 物價騰貴에 對하야 注意를 要할 旨를 指摘하고 且歐洲의 證券을 더무만히 買入치 안토록 警告하얏더라

米國海軍次官
도빈손氏任命

(華盛頓十一日發) 『로ㅡ자스』의 後任으로 『도빈손』氏는 遂히 海軍次官에 任命되얏더라

大西洋橫斷郵飛
米國의大計劃

(華盛頓十一日發) 米國海軍專門家委員會는 『쳅ㅡ린』式大航空船 『쥐드ㅡ아ㅡ듄』第三號로 紐育倫敦間의 大西洋橫斷郵便物輸送에 使用하기로 提議하얏다 그러나 米國海軍省은 아즉 何等의 決定을 하지아니하얏더라

滿洲露貨騰貴
奉露協約細目協定在近

【十二日奉天特電】 最近當地方錢莊、取引市場의 露貨市勢는 漸次昂騰의 氣勢를 보이며 昨今開原取引所에서는 『로마노푸』紙幣가 一萬留는 現大洋五十五元 內外이며 『게렌스키』大紙幣는 三十八元內外의 市勢로 一躍十萬以上의 去來가 잇스며 오히려 騰貴의 氣勢를 示하는바 이는 中國側에서 傳하는 바에 依하면 奉露協約의 結果 今月二十日부터 奉天當局에서 此의 細目協定會議를 열게되야 東三省에 現存하는 露紙幣의 整理에 對하야 具體的協定을 보게되리라는 希望이 잇슨 까닭이라하며 또 王省長은 東三省各縣知事에 對하야 各管下에 잇는 露貨紙幣의 現在額을 調査케하엿다

國際無電會社 成立有望

(東京電) 遞信省의 無線電信計劃中 對歐、南洋、近海等各局은 政府自身에서 經營하고 對米局은 民間의 國際無線電信會社에서 建設하기로 決定한바 本省所管의 分은 工事進捗中인데 反하야 國際無電의 分은 對外無線中 가장 主要한 것임에 不拘하고 財界不振으로 因하야 資本金八百萬圓의 醵集에 困難을 늣기어 澁滯中이다 創立委員長으로 中島、東鄕兩男、內田嘉吉其他財界의 巨頭等을 發起人으로 網羅하엿스나 設立難에 陷하엿든바 會社의 所持分及收益關係에 政府側과 諒解가 成立된 結果 最近再次設立이 可能하게 되엇슴으로 遞信省은 明年度豫算에 會社十四年度의 出資額에 對한 收入分의 配當保證으로 十八萬圓의 補助金支出을 計上하야 大藏省에 要求하기로 되엇더라

食糧局米買付는 最盛期까지 延期

(東京電) 農商務省食糧局에서는 曩者買却한 外米의 代身米로 東京大阪에서 買付할것은 本月中旬頃 三萬六千石、下旬六萬石 計九萬六千石에 達하얏스나 米價는 依然히 高價이며 또한 地方으로서의 新米出廻도 好況이 아님으로 買付豫定을 變更하야 出廻最盛期까지 延期하기로 되엇다더라

補助貨 改鑄基金으로
產業振興計劃

(東京電) 現內閣은 行政、財政의 整理緊縮을 斷行하는 一方 帝國產業의 振興을 計하야 國家百年의 計劃을 樹立할 方針으로 補助貨幣改鑄益金中에서 約一億二千萬圓을 나누어 此의 基金을 設하야 其利子年五分 六百萬圓의 半額三百萬圓으로 產業開發의 積極策에 充當하기로 決定하야 藏相、農相間에는 이미 諒解를 遂한바가 잇섯다 그리고 農商相은 右의 資金으로써 製業의 振興、農家의 副業獎勵、組合組織獎勵의 三項目에 亘하야 具體方策을 實行할 意嚮이더라

農省分立과 郡役所廢止
樞府通過無望

(東京電) 行政整理案은 目下樞府精査委員會에 附議되얏는데 二三顧問官의 所見을 綜合하면

▲郡役所問題 日本自治의 現狀은 郡役所를 通하야 町村을 指導監督치안으면 町村自體로서나 또는 國家로서도 頗히 不便不當한 것은 掩蔽할수업는 事實이다 郡役所全廢說을 主張하는 者는 全國町村長會의 有力者인데 郡長의 監督밧기를 忌厭함에 由한 것이며 町村의 事務라는 立場을 떠나서 主張하는 것임으로 何等根據잇는 理由는 發見할수업다

▲農林省獨立 行政整理의 今日에 此는 矛盾이다 殊히 農林省의 獨立으로 農村振興의 意味가 有하다할 것은 생각할수업다 要컨대 農林省은 無責任한 無人의 主張에 依한 手形의 뒤치다거리임으로 他에 明白한 理由를 提供치안는 限에는 此의 官制는 容易히 樞府를 通過치못할터이라云

整理中止言明
樞府質問에 對하야

(東京電) 十二日樞府審査委員會席上에서 顧問官의 質問에 對하야 行財政整理는 斷然中止라는 旨로 言明하얏더라

志願兵制改正과
陸軍側意見決定

(東京電) 過般文部省側으로 申請이 有한 一年志願兵의 制度改正에 關하야 陸軍側에서는 左와 如히 意見을 決定하얏더라

一年志願兵制度는 當然廢止할것으로 認하나 金의 關係上 當分廢止는 안되나 其代로 納付金이 되지 안음으로 一年志願의 資格이 有한 者로 二個年在營치안으면 안될 者에 對하야서는 情狀을 酌量하야 此要用을 官給으로하야 一年志願兵으로 한다더라

이번은 眞正한 決裂?
日外務省의 諸般發表準備

(東京電) 日露交涉은 全혀 決裂狀態에 잇서서 다시 繼續할 餘望이 업슴으로 日本外務當局에서도 大體로 決裂된것으로 看做하야 諸發表等에 關하야 準備를 急速히 하는 中이더라

日本은 더 讓步할수업다‖(東京電) 日露交涉은 全혀 絶望狀態에 陷하야 圓滿解決의 希望이 無한데 日本政府는 今日以上의 讓步는 絶對로 할수업다고 聲明하고 露國에서 反省하지 안는 境遇에는 日本은 다시 交涉을 繼續할 意思가 無하야 決裂되어도 無可奈何라고 看做하나 露國側의 要求가 有하면 何時든지 交涉의 餘地를 두어 絶對의 決裂은 無하도록 하려는 心算이더라

飛機商用許可

(東京電) 日本現在의 民間飛行機는 水陸共히 練習用과 定期航空用의 二種에 限定되얏는데 定期航空用은 政府에서 補助金을 受하는 關係上 從來定期以外의 營利目的에 利用을 禁하던바 今回民間에서 希望이 有하면 商業用飛行機를 許可키로 되얏다 此로 因하야 今後貨物의 運輸、一般乘客、廣告宣傳을 始하야 營利의 目的하는 何것이든지 乘用에 使用할수잇더라

各地行政整理
大略決定

(東京電) 各地의 行政整理에 關하야는 關東廳을 除한 外는 大體로 大略決定되엿다 其結果 各地의 事業公債는 大體로 中止되얏슴으로 鐵道及朝鮮總督府의 特別會計에서도 公債도 中止하기로 되엿더라

五百萬圓 新規額은
大部分產業經費

(東京電) 總督府가 十四年度豫算編成에 際하야 各局部로부터 提出한 新規事業要求額總計約三千萬圓이엇든 것을 大藏當局과 折衝한 結果 五百萬圓程度에서 解決된바 此의 新規事業은 旣報와 如히 重要한 것은 治水、治山、養蠶、港灣、水利補助等이고 其中에는 新規事業이라고 稱키는 難하지마는 學務局關係의 當然增加도 包含되엿다하며 新規事業의 大要는 左와 如하다더라

▲治山事業 十個年에 一萬五千町步의 砂防工事를 行키 爲하야 總額一千四百萬圓을 支出키로 하엿던 計劃은 年年事業의 縮少로 因하야 今日까지 四個年間의 支出總額이 五十一萬圓에 不過하며 따라서 工事도 延期狀態에 잇섯던바 來年度부터는 本計劃에 若干의 改正을 加하고 更히 百六十五萬町步의 植林工事를 行하는 同時에 年額四十萬圓으로써 治山事業에 着手할것이라한다

▲水利事業補助 十五個年의 旣定計劃에 依하면 每年二萬七千町步 經費一千五百萬圓으로써 十三萬七千町步의 土地改良을 行키로 하얏던것인데 屢報와 如히 補助額의 削減과 反當工事費의 騰貴에 依하야 豫定대로 進行치못하고 年年度에 그쳣슴으로 계우 約一萬四、五千町步에 不過하얏다 그런데 來十三年度에는 約三千町步라한 增額에 依하야 豫定된 豫定의 增額이 無하면 年年이 다 此의 完成에는 約二十個年을 要케된다 그러나 旣定計劃에 比하면 오히려 八、九千町步式은 繰延될터이라한다

▲養蠶事業 本計劃은 未發表에 關한 純全한 新規事業으로 下岡總監의 立案인대 朝鮮內蠶繭의 生產高가 不過二十萬石인것을 十個年計劃에 依하야 百萬石을 增收케하라고 來年度부터 經費四十萬圓의 繼續事業으로써 改良指導獎勵를 할터이라한다

▲治水事業 此는 旣報와 如히 旱害救濟事業으로 萬頃、載寧二江의 修築을 行하는 것인데 年年六十萬圓의 繼續事業으로써 完成코자하는 것이다 內容에 就하야는 屢報한것임으로 省畧함

▲港灣改修事業 此는 旣히 繼續事業으로 一次計劃하엿다가 中止한 釜山港其他의 改修築인데 다 容認하엿스며 改修築의 港灣은 釜山港에 四十萬圓、元山及城津港에 十萬圓、淸津港에 十五萬圓等이다 其他新規事業費로는 臨時戶口調査及學校方面의 當然增加等도 包含되엿고 本年度日本서 法令으로 發布된 『메ㅡ틀』法에 對하야는 豫算이 不成立된 模樣이나 法令은 發布하야 事業에 着手는 하기로하고 經費는 商工課分室의 三十萬圓으로써 宜當、度量衡器의 製造에 充하며 諸賦帳의 改正은 後年度로 미루엇다더라

國有財產法
適用範圍問題
總督府某高官談

東京所報에 國有財產法適用範圍를 各地에까지 及한다는 問題는 去大正十一年四月各關係當局者가 東京에 會合하야 意見交換이 잇섯는바 其當時大藏省과 各地當局의 主張이 너무 懸隔하야 容易히 一致치못하고 問題는 爲先留保의 形式으로 經過하얏던것인데 今回政府에서 此의 整理를 斷行코저하는 中에 當하야 問題는 再次提唱되야 近近各地當局의 會合을 機會로하야 解決을 圖코자한다며 果然實現될 可能性이 잇는 與否는 直接其他財政에 影響이 잇는것은 勿論 政策에 重大한 影響이 잇는것은 勿論이요 特히 朝鮮의 財源이 貧弱한 關係로 最히 財政의 貧弱한 關이 잇는 곳에 잇서서는 重大하다 思할수잇슴으로 當局者는 愼重한 態度로 此에 臨하야 善處할것은 勿論이며 右에 關하야 總督府某高官은 左와 如히 意見을 말하더라

先年大藏當局이 主張한바는 國有財產은 其性質上一般會計에 屬하는것이 至當하다云함에 在한바 此見解로부터 極力特別會計로부터 切離코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實際問題로는 반다시 그러한 解釋에 依하야서만 解決될것이 아니라 此에는 其他의 財政狀態를 考慮치아니하면 不可하니 決코 理想에만 固執할것이 아니라 朝鮮에는 陸海軍用地를 貸給하야 其他一般會計 卽大藏省主管에 屬한 國有財產이 相當한 數에 達하는바 此等은 主管을 異히하는 關係上 其取扱에 잇서서 甚히 不利한 狀況이라 政府에서 法의 適用範圍를 擴張한다하면 爲先此等問題로부터 解決치안이하면 아니될지니 要는 上의 問題임으로 實質에 잇서도 大藏當局이 讓步치아니하면 到底히 此의 解決은 望키 難하다 그러나 大藏省도 大部分讓步할 模樣인즉 如何히하던지 圓滿히 解決되리라 思하노라云云

土木部廢止와
工政會의 活動

土木部廢止에 就하야 技術官은 不少한 憂慮中에 잇는바인데 此의 善後策에 對하야 工政會支部에서는 幹部가 協議한 結果 爲先總督、總監에게 對하야 技術家의 意思所在及現今에 技術官出身인 長官을 設置함에 至한 過去의 經過를 八日에 總督總監에게 陳情하엿스며 一方으로 東京本部에도 詳細한 電報를 發하엿고 昨日은 工政會朝鮮支部評議員會를 開하야 詳細히 討議할터인데 大體의 技術官이 主張하는 바는 今日에 게우 技術長官을 局部長會議에 列席식혀 直接間接으로 技術에 關한 獻策을 하든터이며 更히 十四年度에는 本年度以上의 諸事業이 잇서 多事多端코자하는 此際에 土木部를 廢하고 土木課를 置함이 何等內部의 縮少는 업시 다만 部라는 名稱을 課로 變更함이라하는것은 屋上架屋의 監督制度를 設함이오 總督府의 監督事務의 簡捷이라는 根本整理方針에 何等意味가 無하다는 等이라더라

移管協議內容은
一、二日中發表
安藤京鐵局長談

大連本社重役會議에 移管에 關한 重要事務를 協議키 爲하야 出張中이던 安藤局長은 十三日午前九時四十分京城驛着列車로 歸京하엿는데 左와 如히 語하더라

重役會議는 開會時間外지 協議하여 두엇든 터인 故로 十一日着連卽時로 午前十時부터 開會하야 終日協議를 行하엿는데 其內容에 就하야는 일로부터 本日(十三日)中에 政務總監과 다시 協議한 後가 아니면 一切言明할 自由가 無하나 從業員도 苦待하는터인즉 可及的速히 發表코자하는바 余의 생각에는 十四日中에 發表코자하나 萬若不可能하면 느저도 十五日에는 相違업시 發表될터이다 大體로 退職手當이던지

移管後의 待遇로던지

滿鐵은 七年이나 使用하던바이오 總督府는 일로부터 使用코자하는터인즉 決코 他人의 事가 안인지라 그러케 不當한 事는 無할줄로 思한다 退職金等도 余는 一厘도 削減치안는다고 旣히 文書로 發表하엿슴에 不拘하고 個中에도 아직 安心치안는 者도 잇는듯하다 各人各個의 處地에 따러 或은 退職金이 重要한 人도 잇고 比較的年限이 短한 人은 移管後의 待遇가 問題인즉 每人의 滿足을 與하기는 不可하다 然이나 余는 誠心誠意로 極力從業員의 希望에 副하도록 努力할줄로 思하노라 退職手當이 如何라고는 言明키 難하며 따러서 一時로 支給치안는 境遇의 利子與否도 知치못한다 그런데 此에는 二樣의 見解가 有하니 卽退職手當을 失業한 境遇의 救濟金의 意味로 할는지 勤續中의 努力에 對한 報酬로 할는지인데 一、二日後이면 判明될것이며 移管後에 人員을 減할과 如한 事는 萬無이고 다만 老人의 代에 靑年을 使用할은 有할지도 難測이라云云

青木專賣局長
勇退說이잇다

今回總督府의 整理와 共히 青木專賣局長의 勇退說이 濃厚하든 中인데 此에 就하야 某明確한 側에서 聞한바에 依하면 此機에 青木氏는 東拓理事로 入社하기로 交涉이 成立된듯한바 特히 氏가 最近自身이 退職하기를 希望하는 뜻을 漏洩함으로 推察하면 或事實일는지도 未知이라더라

後任은今村氏說

一方青木專賣局長의 勇退說과 共히 今村氏의 局長說은 다만 時日問題가되얏는데 第三者의 見解로 云하야도 氏가 多年專賣局의 牛耳를 掌握하야 造詣가 깁흠에 依하야 불지라도 此問題는 動치못할바이라 觀測되더라

滿鐵收入比前減少

(東京電) 滿鐵의 營業成績은 財界不況으로 因하야 減少의 結果를 示하얏다 十一月四日現在의 收入은 四千三百八十四萬九千八百八圓으로 此를 前年同期에 比하야 四百八十一萬六千八圓의 減少인데 本年度豫算에 比較하야도 四百六十七萬一千百四十九圓의 減少이더라

貯蓄宣傳新計畫

貯蓄觀念並其思想向上을 圖키 爲하야 遞信局에서는 새로운 宣傳計劃을 立하고 所謂徹底的貯蓄心의 喚起에 努力하라고 準備中이라는데 所聞에 依하면 財政緊縮의 此際인 故로 經費를 만히 要키는 難하다하야 가장 簡單한 方法을 取할터인데 그 方法인즉 市場開日等多數人이 集合한 場所에서 高聲蓄音機를 使用하거나 或은 交通이 頻繁한 場所에 在한 郵便局所前에 電氣로 만든 人形을 設置하야 아모조록 好奇心에 끌을려 不知不識間에 貯蓄思想이 注入되도록할 方法을 講할터이라더라

年賀郵便取扱

年賀郵便은 震災等의 關係로 昨年은 不得已中止하얏던바 秩序도 漸次整頓되얏슴으로 本年은 例年과 如히 復活하기로하야 朝鮮에는 十二月十五日부터 二十九日까지 受付를 開始하기로 決定하야 遞信局에서는 此의 準備를 終了하얏다 關係方面에 通牒을 發하얏스며 更히 本年부터는 年末年始에 當하야 事務의 混雜을 防止하기 爲하야 廣告郵便과 集金郵便은 左의 期間中은 取扱지아니한다더라

廣告郵便 引受 自十二月二十五日 至一月七日
集金郵便 引受 自十二月廿五日 至一月三日
再立 自一月一日 至一月三日

八面鋒

○官舍村에서 사는 兩班님네가 行政整理바람에 아직 김장을 中止하고 잇다나 이것은 蔬菜商의 行政整理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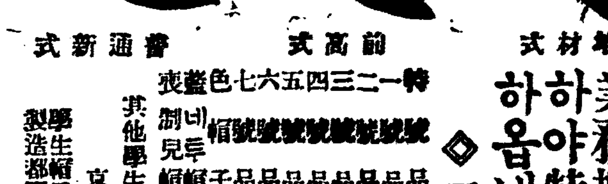
○判任官이라도 十餘年 단인 사람은 退職金四五千圓은 밧을 모양이라나 이機會에 退官하는 것이 上策이라하는 老朽官吏의 行整觀

○滿張間의 暗鬪는 漸漸露骨化한다하는데 그래서 第三奉直戰은 第二奉直戰의 胎內에서 生長

謹告

十一月十三日附本報第一千五百廿六號는 記事中當局의 忌諱에 抵觸되야 發賣禁止의 處分을 當하얏기로 該記事만을 削除하고 號外로 發行하얏기 玆에 謹告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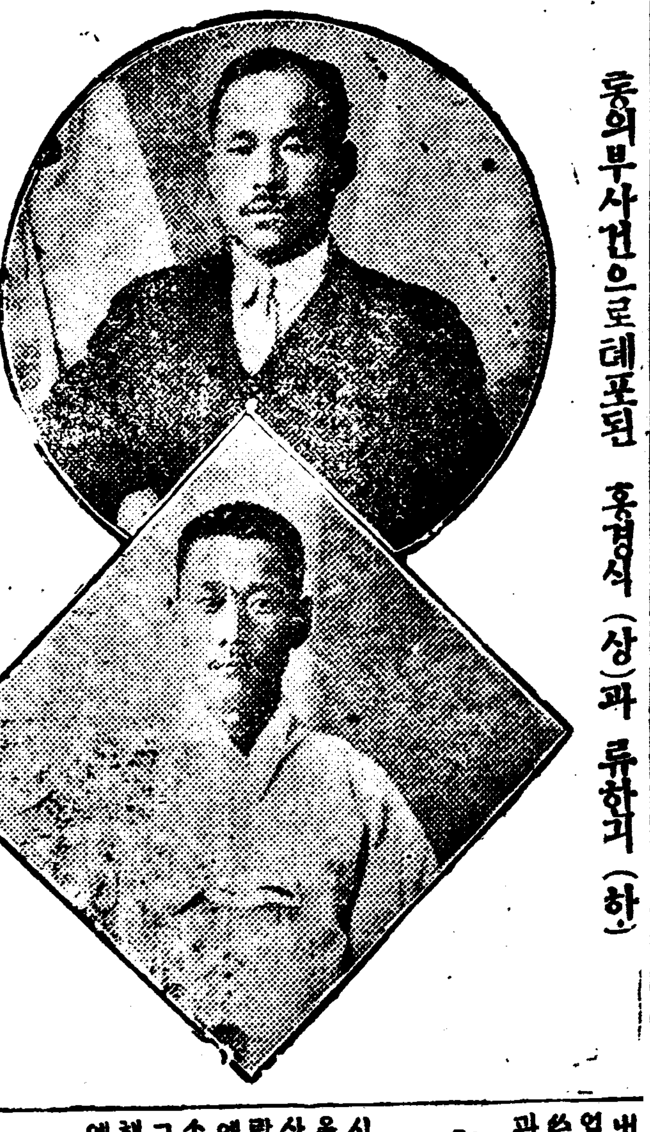


特號品	錆材式	金二十二圓
一號品	同	金十六圓
二號品	前高式	金十一圓
三號品	同	金九圓五十錢
四號品	普通新式	金七圓五十錢
五號品	同	金六圓六十錢
六號品	同	金五圓五十錢
七號品	同	金五圓五十錢
色號品	同	金三圓五十錢
藍帽子		金三圓四十錢
表制帽 네ㅡ見亭帽		金四圓五十錢

其他學生帽子附屬品各種
京城府橋南洞百十七番地
學生帽子製造都賣 永泰屋製帽所
振替口座京城一三四〇三番

最新流行洋靴는 絶對로 義成洋靴店에 限합니다
製造에 堅牢美麗와 品質에 優良强大는 義成洋靴店에 特色

◇營業種目
歐米最新式流行靴 甲皮製造附屬品一式
蹴球靴庭球靴其他 運動靴製造販賣業
南大門商業學校及各學校指定 各銀行會社
電車課諸官衛御用
商標 成 義成洋靴店
京城鍾路四丁目二〇六番地
主 具敎喆
製造工場監督 朴炳日
地方監督 金龍俊
振替口座京城一二六四六番



동의부사건으로 톄포된 홍경식(상)과 류하긔(하)

慶北事件과同系統
南北으로連絡하야擧事密議
경찰부에톄포된동의부사건내용
事件의發覺은被害者의密告로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김동삼(金東三)의 부하 홍경식(洪景植)이외 삼인이 무긔탄환협박문등을가지고 시내각부호들과 디방각부호들에게 협박하며 다수한군자금을 모집하다가 경긔도경찰부형사과(刑事課)에검거되야근일

경성텬디 의공긔가긴장하며인심이흉흉하다함은누보한바와갓거니와이제그사건의후보를다시듯건대 그들은 중국디방에 잇슬때나조선에 건너와서나 대사를계획코자동지를구하엿스나 항상자긔들과뜻이갓고 마음이가튼 동지들이별로 업슴으로매양그들의일종의한탄을금치못하든중 몃해전에

중국운남 (雲南)군관사관학교를마치고 조선독립에 헌신하야 대대뎍으로 활동을하다가대구(大邱)에서동지들과가티 경북경찰부에 검거되어 각각징역의 판결언도까지 바더가지고 바금 텰창에서신음하는 최윤동(崔允東)과가티중국잇슬때에서로약수를 하여가지고 절친하게지내며

조선내디 로잠입하야군자금(軍資金) 모집, 대관 암살(大官暗殺)관텽파괴(官廳破壞)등 여러가지거사를 도모하기로결뎡한후 무긔 탄환등을구입하야가지고 최윤동일파와가티 국경을넘어비밀히 잠입하야 쥐도새도모르게거액의

군자금을 그와가티모집하야가지고 후일은본부로보내며 혹은무긔를 더사드려서 여러가지거사를 적극뎍으로 진행하든중에 최윤동일파는 대구에서 검거되고 홍경식일파는이번에 데포된것이라더라

라는데그들은 조금도 긔탄업시 자긔들의 계획하엿든 바를일일히속임업시 말하엿다 하며그말하는목뎍은 머개이상에 말한바와가티 군자금을 모집하야 본부로보내며 또는무긔를 구입하는등이라더라

自筆로脅迫狀
져에업는대담

이번경성동의부지부사건의협박장은 대담히도범인들이 자필로써서보낸것인데 인찰지에 먼저조선독립운동에군자금이필요한것을 말하고 모년모월모일까지 돈을가지고 보커로오라고햇스며 내용문자에는 그리저당한 것은업스나 자필로써서 위협을무릅쓴것은이전에인쇄물을보내든것과록히다른뎜이라더라

同根異枝
량파의별개행동

가티련락을취하야가지고하기는하나 그래도자긔의 부하를따로두고대대뎍으로 활동하는 이만갓지못하다하야 동의부 본부로부터 부원이나오도록 하야가지고서로 마음과뜻을 의지하며 또는미더가며 비밀리에서 소지를달하기에 로력하다가 그와가티검거된것이라더라

發覺은密告로
피해자중에서밀고한것

루루히보도한 바와가티 유약일이교묘하고 중대하고 비밀히되엿슴으로 아모리 긔민한경찰이라도 용이히그단서를 알수가업섯든 것이엇잇스나 일은매양 뜻과가티안되는것이 만흔것이 이세상의속일수업는 사실이라 그들의협박을밧고 군자금을내인사람중에서 무슨사정에거렷든지 그사실을 시각을지뎨하지안코 경찰관헌에게 밀고하엿슴으로 경찰당국에서는 이것을단서로잡어가지고비로소활동을개시하야 그와가티검거한것이라더라

事實을事實대로
일일히답변

그들은 아직까지 형사과에서계속하여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이

剛直一貫
광주출생리병욱

리병욱(李丙旭)은본래전라남도광주(全南光州)사람으로 어려서가뎡에서 한문을배호고 창평공립보통학교(昌平公立普通學校)를졸업하고 경성에와서 파립고등보통학교삼년급까지다니다가 중도에 신병으로퇴학하고 울울한시국에 대한불평을 참지못하야 만주로 건너갓다가 년전에광한단(光韓團)사건으로 신의주디방에서 징역이년에 선고를밧고 오래동안옥중생활에신음하다가 만긔출옥이된후에도 가사를도라보지아니하고 집에는 잠음친과 어린동생이잇서 생활이곤난하나 그런일에는 별로개의치아니하며 항상해외로 나갈생각을품우고잇섯고 성질이 그리과격하지는아니하나 부자형데간에라도 자긔맘에맛지안는말을하거나 일음식히면 생사를불고하고 덤비는성질이잇스며 고집이심하야 자긔가하고자 하는일은남이아모리 말리어도 긔어코하는듯성을 가젓다하며 그는지금이십팔세의 청년으로 집에는늙은부모, 어린동생, 안해, 첫번이딸이잇더라

리병욱의필적

貴族도三人
시내의피해자

시내에서 협박을당하고 군자금을내인 사람은 작지에보도한바와가티 그외에 또세사람이잇다는데 그세사람은 당시에세력이 당당하며 재산이만흔 소위모모하는 귀족들 이라는데 그들의성명은 그들의 신변을위해서 그러는지 하여간절대비밀에부친다더라

萬圓을請하야
칠백여원주어
안도집에갓슬에

구월이십칠일 밤여덜시경에 대문밧게서 담양(潭陽)사는 자긔친우 고하주(高厦柱)에게서 편지를왓다기에 두사람을 불러드리니 조용히맛나자고 아래방으로 나려가서 륙혈포를 내어놋코 만원을내어노흐라는 것을 겨오 현금을모조리 긁거서 삼십팔원을 주엇는데 그후에도권총대가 두번이나와섯스며 권총실탄두개도 협박장과 함께 밧앗습니다 그리하야 만원내라는것이 천원까지주려드러서 여러번 졸리다가 마츰내칠백이십원을 내어놋케된 것이올시다

言辭는紳士的
두번이나협박
리경세집에갓슬에

구월십삼일 상오 아홉시경이엿습니다 어떠한조선옷입은청년이드러서며 자긔네는 [illegible]에서왓는데 비밀히의논할일이잇다고하더니 륙혈포를 내어놋코 자긔네는 북경에서왓는데 독립군자금으로 오천원을 내어노흐라하기에 돈이업다고하매 그들은백방으로 독립자금의필요를 말하며 졸르는고로 이백원소절수를 주엇더니 현금으로 밧고아달라하야 그대로 응종하얏는데 그들의언사는 매우신사뎍이엿습니다 그후에다시 십월십륙일부로 권총의실탄한개와 협박장이왓고 동이십삼일에 뎐화로 이십사일내로 천원을 해노흐라는협박을밧앗섯습니다

檢擧前의活動
소위피해자들의당시사실담

경성에동의부지부(統義府支部)를설치하기위하야 여러가지로 활동하다가 계획이미리탄로되야 관계자홍경식(洪景植)등네명이 경긔도경찰부에 검거되고 남아지 련루자두명은 뒤를이어수색중이라함은 작지에 자세히보도한바어니와 이제홍경식등은 과연엇더한활동을하엿는가 시내에서도 사오인에게서 도합일천사백여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얏다 한즉 그들은과연엇더한행동으로 이와가튼돈을 모집하엿는가

前後三次訪問
김교신의집에

현금일백십오원을빼앗겨다하는 효자동륙십구번디(孝子洞六九) 김교신(金敎莘)를방문한즉 음력구월십사일밤에 낫모르는두사람이와서 륙혈포로위협을하며 돈오천원을내이라함으로 방금현금이업스니 닷새후에오라하얏더니 닷새되는날에는 아니오고 엿새되는 음력스무날 오후 두시경에 전에왓든 두사람이 또 왓기로 여긔저긔서 급히 허변통하야 일백십오원을 주엇더니 그날밤에 또세명이와서 가진위협을다하며 돈을더내이라 하나 워데돈이 업서서 다시의홀한을하고도라갓섯는데 그이튼날 종로서에서 왓기로 엇지할수업시 사실대로 말하얏소 하며사실을인뎡하엿다

金章植도逮捕된듯
현익렬은국경을넘은듯
사건은불일간락착된다

이사건의련루자중 김장식(金章植)은 경상도 대구(大邱) 밀양(密陽)방면으로도 군자금을 모집하러갓는데 그방면에서 데포되엿다는말이잇고 또련루자 현익철(玄益哲)은 이미 국경을너머서 도주하얏다는말이 잇슴으로 이근래에 드문사건도 이미데포된네명만 취됴를마치어 금명간검사국으로넘기게되리라하더라

市外鹽田里에
또軍資金請求
六穴砲二挺을뵈이며 현금천원을청구하여
龍山署員의總出動

근래에 드문중대사건이 시내에 발생한 이래로 시내각서의 활동이 맹렬함을 따라 그런두자가 시외뚝섬등디로 도망하야 잠복한흔적이 잇는듯함으로 뚝섬서고등계(高等係)에서는 지난십일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야 엇재던

경성시내 시외에는졍관의 출몰이비상한중인데 이러케경계가심함도 불구하고 지난일일아츰여섯시경에 고양군뚝섬면렴뎐리(高陽郡纛島面廉田里)삼백 사ㅅ구번디 리덕규(李德圭)(三○)의 집사랑에 십여명사람이 느진잠이 채깨기전에 원낫선청년한낭이드러와서 자긔는서간도(西間島)에잇는독립단에서 군자금(軍資金)모집의사명을 띄고지난 구월구일에 떠나왓는바 이집가는데서는 적어도천원은 데공치아니면 불가하다하면서 증거로권총두자루를내며 보이는바 그집에서는 현금이업슴으로 후일로긔약하매 후히허락하고 흔연히도라갓다는데 이보도를전한

룡산경찰 서에서는 고등계사법계를 총출하고 형사가총출동으로 마포방면에 대활동을개시하얏스나 작일오전까지는 아즉 아모단서를 엇지못하엿는바 역시이번경긔도경찰부에데포된 동의부사건이나 혹은 서대문서의사건과 관계가업는가하야 대소동인 모양인데 만약관계가잇다고하면 사건은더욱 확대될모양이라더라

鄭在達과도連絡?
서대문서사건은금명간발표

아즉의문에싸여잇는 서대문경찰서고등계(高等係)에서 방금취됴중인 김형준외파의사건은 모당국자의말을듯건대 지금까지조사에의하건대 아즉까지 이러타는사실이 나타난것이업고 다만결사(結社)의 준비중에 뎨포케된모양인데 그일파는모다일곱사람으로 방금검거된사람은 작일본지에보도한바와가티 삼인, 수색중인사람이 삼인, 그러고수령으로인증할만한자한명은 벌서 눈치를채고 해삼위(海蔘威)방면으로 도망한듯하며 본래그들중에는 삼사람은서울에서 일을보고 네사람은 디방에다니면서 활동을하든것이라하며 방금 경성디방법원에서 예심중인 정재달(鄭在達)일파와관계가잇는듯하다는데 금명간대개를발표하리라더라

金剛温井鎭火
손해는오만원

금강산온뎡리(金剛山溫井里)화재는 이미보도하얏거니와 지난십일오후십시경에불이이러나 이십사호(二十四戶)를소실하고그되얏는데 우편물(郵便物)의 중요한서류와모든긔구(器具)등속은전부소실되엿고 손해는 약오만원가량이되야 방금엄밀히 됴사하는중인바 불난원인은 송엽(松葉)을싸아둔곳에담배불이떠러져서발화된것이라더라(원산)

虎之門事件
難波는死刑言渡
언도를듯자마자피고대조는

호지문사건(虎之門事件)난파대조(難波大助)에게대한사건은 대심원(大審院)특별재판으로 횡뎐(橫田)대심원장소산(小山)검사총장이 심리중이더니 십삼일오전열시에 사형의판결언도가잇섯다는데 대조는 사형을언도하자마자 [illegible] 엿다더라(동경지급뎐보)

執行은七日內에

여러가지수속후에 난파대조(難波大助)에게대한판결언도가잇슨결과 대심원에서는 여러가지수속후에 그긔록을 정리하야 오일이내에 사법대신(司法大臣)에게진술하고 고대신은 즉시 산강(山岡)형사국장에게 명하야 긔록을조사한후 대신으로부터형(刑)의집행식(執行式)을 소산(小山)검사에게 명할순서가 되엿다는바 판결긔록을대신에게 진술하는것이 오일간 형사국장의 긔록조사가 이일간으로내정되엿다더라

大助는解剖
집행후그의시톄 할듯

사형판결후의 대조는 수형당일까지는 역시미결수로 취급할터이요 판결한지 오륙일후에 사법대신으로 부터다시사형집행의 명령서가 나올터이라는데 교수대(絞首臺)에오를마즈막날은 검사의 사형집행문랑독이잇고 교회사의 훈계가잇슬터이라하며 집행후의 시톄는지원하는자가 잇스면그친적에게 내여주던지 업스면고전잡사곡(高田雜司谷)묘디에 장사하는것인데 대조는본인의 승락을 어더서 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해부할듯하다더라(동경뎐보)

判決前日까지
사회주의연구

가등(加藤)수상과횡뎐(橫田)법상은 호지문사건(虎之門事件)에대하야 섭정뎐하(攝政殿下)께배알하고 종종 어하문(御下問)에대한 봉답이잇든중 십삼일에 난파대조의 최후의 심판이잇섯다하며 그젼날밤 시곡(市谷)형무소데오호독방에 홀로잇는 대조는 침침한 오촉광뎐등아래에 고요히안저서 면치못할운명을 생각하며 차입한커틱밥도잘먹지아니하고 하로밤을지나 십삼일오전여덜시반에 호송하는자동차를타고 엄중한 경계속에 대심원으로향하엿다는데 난파대조의 사개월이상옥중 생활은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강령『막스』주의개조기타사상에관한책을 판결언도 전날까지읽엇다더라(동경뎐보)

犯行當時의
前後顚末
(사진은난파대조)
警務局의發表
호지문사건과

호지문사건에 대하야 조선총독부경무국에서는 사법성(司法省)에서발표하엿다는 사실의개요(槪要)를 다시발표하엿는데 그개요는아래와갓더라

(前略)大正十二年十一月被告人大助의父作之進이被告의主義的傾向을緩和키爲하야大助에게遊獵을勸하얏든바被告人은杖銃을入手하얏슴으로同年十二月十七日山口縣柳井津宮本藏一方에서中形彈丸을買하야此를充塡하야五彈을作한後同月二十二日에右杖銃及彈丸을携帶하고鄕里를出發하야其翌一月二十三日에京都에下車滯在中新聞紙에依하야皇太子殿下가同月二十七日午前十時二十五分에赤坂離宮을御出門하사帝國議會開院式에行啓하실을知하고玆에殿下行啓의途中에서危害를加코저決意하고二十六日午後七時四十五分京都驛發汽車로同地를出發하야翌二十七日午前八時二十分東京驛에着한後同驛待合室便所內에서杖銃에彈丸을裝塡하야此를携帶하고芝區虎之門西洋家具商아메리가屋前步道에到來하야拜觀者인듯키一般民衆에混入하야가만히鹵簿의御通過를기다리다가同日午前十時四十分頃에殿下의御鹵簿가到來함을보자直時警戒線을突破하고此에接近하야

銃口를殿下에게向하야發射하야右側窓의右上方에直徑寸餘의貫通孔을生케하엿스나即時逮捕되엿고 殿下께는無恙하섯든것이다 本件犯罪는刑法第七十三條에該當하야大審院의特別權限에屬함으로即日被告人을逮捕하야그訊問을終了하자東京地方裁判所檢査正은即日로事件을檢事總長에게送致하고檢事總長은裁判所構成法及刑事訴訟法의規定에依하야直時大審院長에게豫審을請求하고大審院長은東京地方裁判所判事에게

豫審을하엿스며同判事는大正十三年二月二十二日에그取調를마치고意見書를添付하야書類及證據物件을大審院으로送付하고大審院은檢事總長의意見을듯고同年三月六日公判開始의決定을한後同年九月二十二日受命判事는公判準備로被告人을訊問하고大審院特別刑事部는同年十月一日에公判을開하고翌二日에審理를終行하여同日에結審한것이라

大京城生活記 (九)
生의歡喜、死의悲哀
하루셜흔네번식 쓰리는첫국밥대신에 북망산을향하야가는이십삼인의생명

이가티 대경성안에서 일년에이천여차의 혼인이거행되는데 혼인한후에는 아들낫코 딸나흘것은뎡한리치이라 이제경성안에서 하로동안에 어머니 배속에서 나오는 간난아기가 몃명이나되나 최근경성부민적계(民籍係)에서수리한바에 의하면 금년정월부터륙월까지 반년동안에 응아하는첫우름소리와 함께세상구경을 하겟다고나온 아기가 륙천삼백이십명임으로 하로 평균삼십사명식의 간난아기가 탄생한셈이다 이반년동안의 륙천삼백이십명의 간난아이를 조선인과일본인구별로보건대

朝鮮人 五、一七八名
日本人 一、一四二名

이라함으로 이를하로평균으로 보면 조선사람의 간난아이가 이십팔명이오 일본사람 노릇할간난 아이가 여섯명이라 이비례로 보면 일년에 일만이천륙백여명의 새사람이 생기는 세음임으로 이대로 나아간다하면 이십삼년후에는 지금잇는현경성사람이업고도 새로나는 간난이 새경성사람으로 넉넉히현재이십구만의 인구를 일우어노흘수잇슬것이다 그것은 장래일이라 말할것이못되거니와 하여간하로 삼십사명가량의 간난아이가 대경성안에서 첫우름소리를 내이는것은 사실일것이다 그러나

◇**사람** 에게는생(生)이라는사실의 반면에 사(死)라는실로 엄숙한사실이잇스니 만약세상사람들이 죽지는안코 작고낫키만한다면 벌서 이세상은사람이 가득히차서— 마치콩나물 모부어노흔것 가탓슬것이다 그러나조화(造化)를마튼엇더한힘은 새로운생명을 창조하는동시에 묵고 낡은생명을 빼아서버리나니 이럼으로 모든생물들은이 낡은생명을 빼아서가는 무서운힘—(죽엄)—압헤서항상떨고잇는것이다 새로나오는생명이 깃겁고반갑고 경사로운 일것가트면 업서저버리는 생명—죽엄—은 슬고 무섭고불길한것일것이니 경성안에서 설흔네곳에서 생명의 환희(歡喜)가잇다하면 죽엄압헤서 우는소리는몃곳에서나들릴것인고 반갑지못하고 불길한이약이나 대경성안에서 이러나는『한사실』이니 또한번 자세히 알어보자

× ×

◇**경성** 안에서금년정월부터 륙월까지반년동안에 죽은사람의수효는 사천삼백륙십삼명인데 이를조선인과일본인구별로보면

朝鮮人 三、五七二名
日本人 七九一名

일으로 조선사람은하로에 평균열아홉사람이죽으며 일본사람은 하로에평균네사람이죽는것임으로 경성안에서하로동안죽는사람의총수효는 이십삼명인 세옴인데 이비례로 따저보면 일년에경성안에서 죽는사람의수효가 약팔천칠백여명가량이다 최근조선안에 사망한사람의수효는 얼마나되는가 참고로 소개하건데 그총수효가 팔천팔십사명으로 이를다시 남녀별로보면 남자가 사천삼백여명이 죽엇고 녀자가 삼천칠백여명이죽엇스며 또이를각국인구별로보면

朝鮮人	男	三、四二二人
	女	二、九九八人
日本人	男	八六八人
	女	七六四人
中國人	男	二五人
	女	六人
其他外國人	男	一人
	女	—
總死亡者數		八、〇八四人
內	男	四、三一六人
	女	三、七六八人

이라는데그중에도 총수효로보면 조선사람은 선경(?)이 일본사람이 되는편이라 데병(肺病)으로 죽은이가 제일만코 다음은 소화긔병(消化器病)이며 일본사람은 호흡긔병(呼吸器病)이 제일만타한다

× ×

◇**우에** 이야기를 부친 말하면 대경성안에서 설흔네명의 새로운생명을 마지하는동시에 스물세명의 낡은생명을 작별하는것이오 이를일년으로 따지면 일만이천여명의 새생명을마지하는동시에 팔천칠백여명의 낡은생명을 떠나보내는것이니 이비례로 인구가 해마다 증가되는것도 사실이라 이의무명을만드는것이니 팔천칠백여개의 무덤을만든다는것이라

아— 대경성의살림은 실로복잡하다 하로동안에 서울한편에서는 산모를위하야 설흔네그릇의 『미역국』을끄리는동시에 또한편에서는 스물세개의상여가 요령을흔들며 묘디로 향하야 떠나는구나! 깃붐과설움과 질거움과 괴로움이 한곳에서움즉이는 대경성의 복잡한생활이여!

僞造紙幣使用
범인한명취됴

재작십이일 밤중로경찰서에서는 시내 서린동(瑞麟洞)팔십오번디 류순용(劉順用)(三二)이라는자를 데포하야 목하 취조중인데 그자는 위조한백원자리 조선은행권을 사용한것이 판명된것이라는데 사인은 자긔도 남에게 속아서바든것이라고하나 수상한 뎜이만허서 계속취됴중이라더라

京畿道의整理는
약륙십여명
실시는래월초순

행정재정정리문뎨에관하야 경긔도(京畿道)에서도 그정리의수속을 며칠전부터 시작하엿다는데 현재 사백이십팔명중 경관외지 이번정리에 들사람은 약륙십명가량이라하며 승급식혀 가지고 정리식힐사람은 발서각각정식통고를하엿는데 정리를실행하기는 래십이월일일부터 오일까지하리라더라

航路競爭에
警察干涉
인천대부간의
자유항해를간섭

인천(仁川)과 부천군대부(富川郡大阜) 사이에는 발동긔선(發動汽船)영업자가두사람이 잇서서 작년부터 영업경쟁이 이러낫섯는데 작년에는 조선사람김윤규(金允圭)와 일본사람 개우치(開佐治)와사이에 여러가지 문뎨가잇섯는데 각처에서 이러나는 조선사람 일본사람간의 문뎨라 김윤규편에서 놀음을먹고 그만 페업을해바린후 그배를다른사람들이 사가지고 대송통운조합(大松通運組合)을창립하고 방금영업에 종사하는터인데 인천 수상서에서는 경쟁을마는다는리유하에 일본사람배와 하로식 걸러다니라고 반명령의간섭을하야 자유항해를 못하게한다는데 전긔 대송통운 조합의말을드르면

동선허가에는 아모규뎡이 업슴으로 하로에 두번항해를하던지 한번항해를하던지 아모 관계가업는데 수상서에서는 공연이 간섭을해가지고 매일 항해를 막슴니다 그원인을드러말하자면 일본사람배와 우리가 함께떠나면 가튼갑이면 조선사람배에 타게됨으로 수상서에서는 이뎜을 생각하야 일본인을보호하느라고 하로식 격해다니라는것에불과합니다 하며불평을말하더라(인천)

客車가墜落되야
녀자십여명부상

십이일아츰 여섯시십오분에 담로삼원군하집촌(淡路三原郡賀集村)을떠난 담로뎐긔렬도렬차가 동사십팔분 하염촌락합철교(榎列村落合鐵橋)를통과하다가 객차가 넘어저 그긔관차와객차두채가 물가운데 떠러저 승객백여명의녀학생중 십여명의 부상자를내이엇다더라(주본뎐보)

今夜의饑饉音樂
우리구락부주최로청년회에서

시내중학동에잇는『우리구락부』에서는 조선의긔근동포를 구제하기위하야 음악계의일류명사를 망라하야 자선음악연주대회(慈善音樂演奏大會)를열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금일오후일곱뎜반부터 조선일보사의 후원으로 시내종로청년회관에서열터인데 이번연주대회에출연할악사는 참으로조선에서 일류이요부는 사제씨를망라한것이니라 원래목뎍이 배를주리고 헐벗는우리동포를구제하자는 정성에서 일어난것이니 이번망연인사들의 동정이적지안엇는데 대창양화뎜(大昌洋靴店)에서는『프로그람』이천여장을인쇄하얏스며 기타 유지제씨의 긔근구제 동정금이 답지하야수백여원에이른다는데 당야의순서는아래와갓다

◇第一部
一、絃樂合奏 行進曲 部員
一、피아노獨奏 金元福
一、獨唱 潘福奇
一、피아노『종로구의行進曲』 許日
一、獨唱 내사랑 金永俊
一、피아노獨奏
一、『쏘─쓰보이스』曲 리쳐
一、만돌링合奏『神의舞』 洪蘭坡 美淸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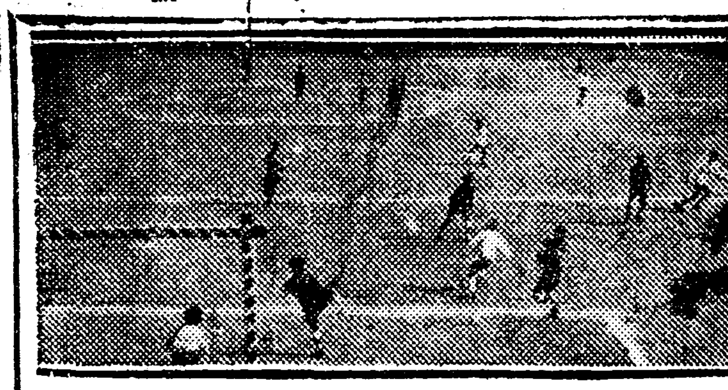
◇第二部
一、獨唱 罪人의哀曲 安大善
一、피아노獨奏 金永煥
一、獨唱 甲、나의故園에서 乙、이스라엘의고뎡스
一、바요린獨奏세레나다 洪蘭坡
一、高音獨唱 歌劇 韓琦柱女史
一、피아노合奏 尹聖德 金合羅
一、牧者의저녁노래
一、高音獨唱 歌劇椿姬中一節 尹心德孃
一、合唱 할넬루야 貞洞讚揚隊

攻玉普校昇格
설비를완전히하야

시내남미창뎡(南米倉町)에잇는 사립공옥학교(攻玉學校)는 창립된지 이미이십년이나되야 교육계에 공헌한바 이만치안은바 무위원제씨외주선으로 선교육당국에의하야 공우보조회의게가되야 기초는떼욱출로하야가지고 교장은 역시김응영(金應泳)씨이라더라

종명자

▲일한합병이된뒤로 일본사람이데일무서워하는것은 대한이라는『韓』자와 태극이엿다▲상뎜일홈에도 한자든것은모조리업시하얏스며 심지어뎐차창에거리가 되지만▲요사히시내소격동(昭格洞)에 잇는 유지들이 한광소년회(韓光少年會)라는회를조직하고 음악무도회를 열게되얏는데▲소관종로서에서는 음악회는 허가해줄 생각이엇지만 그회의 일홈이 불온하니 고치지안으면 못한다고 야단이 나서▲그회 사람들은 하는수업시『韓』을중앙(中央)이라개칭을하고▲거리에 부치엇든『포스타』까지모조리 떼어바리게하고 마랏다나▲세월이업슬때에는 태극과나한『韓』자취미도조캣지만 요사히가티 소란한때에는 좀걷어치우지



全朝鮮學生基督青年會聯合蹴球大會
今日貞洞서第一戰
南北十三校의猛將健軍
月餘를鍛鍊한神術妙技

滿都人士와더부러一般『펜』의손을꼽아기다리든朝鮮基督敎青年會聯合會主催와本社後援의第一回全朝鮮學生基督敎青年會聯合蹴球大會의壯快한첫막은오늘로열게되얏다첫겨울로는運動에알마진絶好의氣候인오늘아츰부터城西의貞洞培材高普의球場에는嶺南의雄將大邱啓聖軍이며湖南의名星群山永明軍이며西의强軍公州永明軍을南部朝鮮의名將들이라하면北으로平壤의覇王崇實大中學을비롯하야開城의猛者松都高普軍이잇다이뿐이랴朝鮮斯界의覇權을잡은培材高普軍과學堂軍을비롯하야在京의名門中等學校의參加가여섯곳에이르러거의全國的으로斯界巨星을網羅한이번大會는참으로얼마나壯觀을이룰것인가미리헤아리기에어렵지안타그리고그들은빗나는優勝의月桂冠을압헤둡우고各地方에서달이넘도록必死的으로猛烈히練習한 鍛鍊에鍛鍊을더한十三校百七十餘名의鐵血男兒들의勇壯한技術은오늘에觀衆을놀내고야말것이다競技와其他大會에關한여러가지事項은아래와갓다

抽籤의結果
審判은絶對獨立

豫定과가티이번大會에參加한다섯곳의專門學校와여덜곳의中等學校合十三校의主將及監督者와關係者數十名은昨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鐘路青年會館에모히여準備例의大會綱領과其他여러가지注意事項을낫낫치說明하고審判部의嚴肅한注意가잇슨後參加팀의第一回豫選抽籤을行한바아래와가티서로勝負를겨루게되얏스며이번大會는從來의弊를一掃코저審判部는嚴正하게本部와全然關係가업시獨立케되얏다

◇中等學校◇
平壤崇實─大邱啓星
公州永明─培材學堂
培材高普─青年學舘
群山永明─松都高普

◇專門學校◇
世醫專門─延禧專門
崇實大學・協成大學
協成學神・不戰勝

大會에寄附

이번蹴球大會의壯擧에對하야그盛況을도읍고저有志諸氏의金品의寄付가적지안엇는바昨十三日까지의것을紹介하건데

高麗公司奨牌二個▲서울프레볼商會奨牌半打▲太平洋商會長白齒粉五打▲德元商店手巾四打▲世昌洋靴店入場券印刷▲徐丙義蹴球則二十八部▲尹致昊三十圓▲申興雨二十圓▲陸定洙五圓▲兪億兼三圓▲李命遠三圓▲邊永瑞五圓▲羅宜壽十圓▲李大偉三圓▲潘河斗五圓▲具滋玉三圓▲李建春二圓▲李商在五圓▲張鵬一圓▲金永述一圓

入場式・競技順序
專門團豫選부터

第一回全朝鮮基督青年會聯合蹴球大會의모든節次는別項報道와갓거니와參加한十三校百七十餘名의選手는今日午前八時三十分까지鐘路青年會館에모히여同四十五分에大會長을비롯하야關係者一同全部二百餘名은培材樂隊를先頭로하고列을지여鐘路네거리를거치여同九時十五分에大會會場인貞洞培材球場에到着하야이어서入場式을擧行한後바로專門學校의第一回豫選戰부터中學團第一回豫選을마치고時間이잇는대로專門團의二回豫選을行할터이다

訓鍊院그라운드
竣工은明年七月頃

그동안問題中이든訓鍊院紀念그라운드敷地買收交涉事件은府當局과古賀地主側과圓滿한解結를告하야不遠間工事에着手하게되얏다는데竣工은明年七月頃이되리라하며工事의大略을듯건대

敷地總面積은二萬二千坪으로그中에野球場五千坪, 테니스코트八百坪, 陸上競技場六千四百坪, 兒童運動場四百坪, 觀覽席은『넷트』뒤로鐵『콩크리트』의十五段을만드러一千人을收容하며其他에十段에五千人을收容할터이라하며『스코어』板은電氣裝置를한다고

수日

第一回全朝鮮基督學生青年聯合蹴球大會
◇午前九時부터貞洞培材球場에서
會費 普通二十錢 學生十錢
主催 朝鮮基督青年聯合會 後援 朝鮮日報社
豫選戰

敎學生聯 籠球大會

一

强猛한氣風이剛壯한競技를낫는지勇壯한競技가强猛한氣風을낫는지그因果의理論은오히려第二義的問題이다 그러나剛壯한競技와밋一般運動의狀況으로써一國民一民族의氣質과밋그盛衰를짐작하게되는것은明白한事實이다 上古우리先民들이郊天、舞天의種族的盛典으로써理想의彼岸을謳歌하며生活의現實을歡樂하든것은文獻이爽實한오늘날에도오히려그勇壯한氣風으로써競進과共樂을아울러하든자취를想像할수잇는바이다 하물며이快活한『스포-쓰맨』氣質로써그全民族의氣質을代表코저하는現代에잇서서 社會全民衆의온갓의將來를支配할責任을가진全國的인靑年의聯合競技가자못深重한意義를가즌것은勿論이다

二

이번朝鮮基督敎靑年會聯合會主催와밋本社後援에因하야今日로써그勇壯한競技의첫幕을열게되는全朝鮮基督敎學生靑年會聯合籠球大會는上述한意味로써社會的一重要事인것을밋는바이다 京城을비롯하야平壤、大邱、公州、群山、開城各都會에잇는基督敎關係와밋一般의專門學校밋中等學校에學籍을둔基督敎靑年들이 特히天氣가淸爽하고風霜이凜烈한첫겨울을 기달이여日來에자자어온 豪勇한氣魄을쏘더보려하는것은 吾人으로하여금더욱그堂堂한態度를想望케하는바어니와十數校一百五十餘人의出場諸子와밋그關係諸氏는또한이에相應한訓練과밋覺悟가잇슬것이다

三

일즉은俟『웰링톤』으로하여금大傘翁의最後를지으든『워털루』의大勝捷은『이톤』中學의運動場에서나옴이라고까지推奬을밧든英國民의氣風은近者에매우偏하니『쓰코트』에서나『요트』의競技場所와競馬場과그리고國際『올림픽』大會에서 英國民은例와가리劣敗者의부끄러움을보고그世界에울리든『앵글로색손』의優越은이미그前途를悲觀하게되엿다고하야世人으로하야금英帝國의將來까지도 의심하게되는것을생각하면 年來에 찬찬頻繁하여지는우리의靑年들의 競技와밋그旺盛하여가는征戰의氣魄은 果然百年間그들의血管속에잠들어잇든天賦의驍勇性의復活과밋그것버할生命力의發展의具現이라는意味로써 매우吾人의뜻을든든케하는바이다

四

이러케深長한歷史的意義를지닌間에서體驗하면서社會의父老와밋當面한靑年諸君은一層의發奮과밋操束을더하야 이意義잇는競技로하여금完美한結果를보게하기를吾人은切願또確信하는바이다

魚ㅣ江湖에서사로낫고人이道에서사로낫는다하나 각각제곳에安處하야서로侵犯함이업슴을일음이라 基督敎學生된諸君이어서반듯이自他를區別하야서스스로줄김이라 다만同氣가相應하는곳에잠간서로말지못함이잇슬을알것이다 出場하는靑年諸君과밋來될諸氏는또한이點에觀感하고留意함이잇슬줄밋는다

朝鮮出版法改正案

一

年來로懸案이든朝鮮出版法改正問題는아즉도如前히審議中에잇서서年內에는議了되지못하리라하니 그持疑逡巡하여서明斷하지못함을알것이다 改正案의內容은今後어떠케變更될는지 그末定稿의內容을具體的으로發表할自由가업다하더라도 그의가手湖含이자못海上의三山을바라봄과가리여서吾人은조처論評할바업다 그러나韓國時代의新聞紙取締規則과現行法인出版法과에朝鮮의『時代의要求하는程度』의範圍內에서日本現行의新聞紙法을加味한것이라고評할수잇다하니 이解說曲澤者의說明을보면나오는듯한當局者의說明을어또한그全豹를엿볼一斑인것을알것이다

二

特殊區域과要求하는程度라는數句의말이이미그들의心事를道破한바이라 吾人은다시娓々하게長說할要는업는바이지마는光武의末年과隆熙의時代、韓國의虛名이잇고行政의實權이이미彼等의手中에들어갓슬째韓人을節制하고拘束하야써文化的運動을외하려하든彼等의武器로써今日까지잇든것이라 이제改正을標榜하고 오히려因循을사랑하니依然한與下의阿蒙으로羊頭狗肉的產物일것을預斷할수잇다 新聞雜誌에關하야는依然한可制度를擴張할것이라하며日本에서朝鮮에輸入되는出版物에對하야는法文의規程을要하지안코 다만內規에依하야解說自在한運用을持續코저한다하니 또한그精神이那邊에잇는것을알것이다 그러면여긔에또그偏狹固陋한制裁의禍因이潛在치아니한가?

幸히獨在論的主我觀에흠빠지지말고 모름이社會의實際와文化의進展을忠實히考慮하야所謂矯角殺牛의남으랑을버슬지어다

朝鮮一의貿易港 살기조타는仁川

팔면으로보아도우리는빈약 수자가가르치는현재의상황

수십년전부터인천(仁川)은살기조타고 시골사람들이 일커러왓다 살기조타고 일커러온 인천이 정말살기 조흔가 한번그내용을드러보자 인천은 명치십륙년에개항하엿다 개항이래 외국무역디로는 조선안에서 첫손을꼽을디위에 잇섯슴으로 각디방에서이주자가 모혀드러 지금의인천을만드른것이다

한참시절

조흡쌔(머정원년)에는인구가 륙만이천까지에이르럿섯스나 그후로 차차감소되야 작년말에는 겨우사만칠천구백삼십이인이 되엿는데 국적별로보면

朝鮮人	六六三七戶	三六〇九四人
日本人	二七一三戶	一一三三八人
外國人	三〇七戶	一六二一人

이오또다시직업별로보면

農林牧畜業	七七〇
漁業製鹽業	四四〇
工業	七六三六
商業及交通業	一七八五六
公務及自由業	六七六一
其他有業者	六六一六
無職及無申告	八五三

으로구별할수가 잇는데 공업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조선인과일본인으로 구별하면 조선인이일본인보다 월등이 수효가만흔터인데 실상은 조선인은공업이면직공 상업이면 등짐장사나소매상이 대부분이오 알로란가는리익은 모다일본 사람이먹는터이다 그러고 인천은부엇보다도 로동세상임으로 압뒤집이 너도로동자 나도로동자여서 그수효가 약일만오천여명에달하얏는데 일본사람은 이수효에 약일할오분밧게안되며 그외에중국인로동자가약오백명은되야 차차로조선로동자의 디반을잠식하는터이다

廿三倍의日富力

한심한조선인부력

그러고 조선사람과 일본사람의부력(富力)을알기에엄는쉬운부세(府稅)부담액을보면총계십오만사천륙백륙십륙원으로서부담별로보면

國籍別	圓	一戶當	圓	一人當
朝鮮人	二七、三		〇、六四	
日本人	四七、〇一		一一、三六	
外國人	二九、四六		五、六一	

이란 인정업는수자를 볼수잇스니 조선사람의 구차한것과일본사람의세력을가히알만하다

特産品은「집신」 일인은긔계로 우리는손으로

인천의공산품이라고는 미곡 양조 제염 금속제품등이주요한데 그공장상태로보면 일본인은 대규모의긔계공장이질비하게잇는데 조선사람은 규모가크나적으

仁川名物은米豆

이로써먹고사는이가이천명 매년부서지는돈이삼백만원

조선에하나인 미두취인소(米豆取引所)가인천에잇다 그래서일확천금을 꿈꾸는사람이 날마다모혀드는터이다 시내에서만 이미두로먹고 사는사람이 이천명가량은되며또 요사이가티 전황한때라도 외박손이수백명식 이 시골사람들은 마치고기를잡으려다가 익기만께앗기는 셈으로 더개는가지온 재산을모다 업시하는터이다 그방면의 모유력자의 말을드르면 우리흰옷입은사람이 일년에이 적어도 삼백만원갓다주는돈이 『미두관』에은되리라는데 누구나말하기를미두는투긔 사업이라고 그다지대단치안케생각하는사람도잇스나이미두는 권조선의물가를 지배하며또인천으로서는이회사의발면되고아니되는데인천의사활문데가잇다 하여도 과언이아니라하니그다지우습게볼사업도아니다그리하야 이미두는 인천의명물인동시에 조선의화근도될수잇다(인천)

府民籍係移轉

권본뎡서자리로

경성부민적계와묘사계와관세계(關稅係)는 수일전까지 본뎡경찰서가들어잇든 경성부 엽헤잇는집으로 멀지아니하야 이사하리라는데 민적계는 아래층에들고묘사계와 관세계는 위층에들게되리라더라

猖獗하는紅疫

인천에환자속발

인천(仁川)의홍역(紅疫)은이삼일래로 신환자가업슴으로 커윽이안심이되더니 또다시 계속되엿다 시내사뎡(寺町)중서 청자(中西淸子)(三)는 지난오일부터홍역에걸려신흥중심일원오후에발견되야 곳피병원에 수용되엿고또시내동강뎡이십번디의이호리필수(李必洙)의이남 석주(錫柱)(六) 가지난삼일부터홍역에걸려 앓다가 십일일 오권 구시에사망하엿는데 사망진단의 결과홍역으로 판명되야 그가족을권부진단하얏더니석주의형동주(東柱)(八)역시 홍역에걸린것이판명되야그날밤에피병원에입원식혓는데 인천의홍역은 최초에일본인촌에류행하던것이뒤를이

花柳界에도

일본사람의세력

이제다시 인천시내의 화류계상황을보면

種別	朝鮮人數	日本人數
藝妓	二一	七〇
娼妓	八八	一一一
內外酒店	四三	〇

내외주뎡은특별

의년산액상천원이라는것이가장조선인의특산품이다

인권과가를 수지를보게되며 매일 그수입의차어는 더욱히심한터인데 소위 내외주뎡이라는것은 아직조선사람만이 경영하는바 그역시취체가심하야 곤난하다한다

教育界의現況

일본인측이칠교 조선인측이륙교

인천시내의 교육상황을보면 공사립소학 중학을합하야 열세학교인데 조선사람의 인구가일본사람 인구에 갑절이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측은 칠교요조선인측은륙교에 맛치는 서당몃곳이잇슬뿐인데 그생도수는

朝鮮人	三〇三四
日本人	二四三七
中國人	九三

이며 학교비예산을보면 일본사람편의 십팔만사천여원에 대하야 조선인편은 약구만여원에불과한데 방금녀자보통학교 하나를새로세우고자애를쓰는중이다

仁川穀取認可

취인개시가되는날에는 인천의경황이매우조타

인천(仁川)곡물협회(穀物協會)에서년전부터인가신청중이던인천현물취인(仁川現物取引)은금번 인가의내보가 인천은 일년에 도달하얏다는데 인천은 일년에 곡물이백만석이상이나 거래되는곳이라 이로말미암어 인천의경황은 매우조아지겟스며 방금그중매뎜(仲買店)을경영하려고운동하는사람이약삼십명이나된다더라(인천)

精米職工의團結

십일일인천에서창립총회

인천(仁川)정미직공조합(精米職工組合)창립총회는 십일일밤아홉시부터 인천로동총동맹회관에서 열리엇는데 발긔인편인하조조합(荷造組合)취원파기라각정미소의 대표수십인이 출석하엿다 발긔인대표료래운(趙萊云)씨로부터 창립에관한취지를설명한후류순근(柳順根)씨는축사겸단결의 필요를 력설하엿는데 이날은다만각정미소의 대표자들반 모엿고 일반직공이다수히모히지 안엇다하야 임원선뎡과규측통과는 오는십륙일에 다시모혀 결명하기로한후 그사이에모든사무는 하조조합 임원에게 위임하고 산회하엿는데 인천시내의 오천여명 정미직공의단결과관은이에 그운곽이 완권히성립되엿고 이에더라 하조조합은해데되고말엇다더라(인천)

荷造組合總會

임금문데도의

긔보한바인천하조조합(仁川荷造組合)림시총회는 십일일하오일곱시부터 로동총동맹회관에서열리엇는데 개회벽두로부터 품삭나리는 문데에대하야 여러가지의의론이잇섯는데 결국은정미조합(精米組合)에서아직까지정식회답이 업는오늘날 직접행동에드러가는 것은너무 경홀한편이잇슨즉 아즉보류하고 정식회답을기다려 보다가 일이잘되지못하는날에는일치한행동을하기로한후산회하엿다더라(인천)

仁川에小火

재작이일오전령시이십분경에 인천부송림

交通遮斷當하고

외출하다가벌금

인천부본뎡이뎡목(仁川府本町二丁目)십번디파다야량장(波多野良藏)은그손자효일(孝一)이가 지난오일에 홍역(紅疫)에걸리어 피병원에 입원되고남은식구가 일주일간 교통차단을당하엿던바 지난팔일에 경관의눈을긔어외출을한것이 발각되야 인천서에서는 양장을 처벌하엿는데 일반환가에서는 공주을위하야 이런일에 엄기를바란다더라(인천)

竹添町에도小火

지난십ㅁ일오권 두시삼십분경에 서대문밧죽첨뎡이뎡목 竹添町二

金浦紀念貯蓄

金浦金融組合은總經費一萬圓豫算으로事務所新築에着手하야今月末頃에는竣工할豫定이라는데그新築紀念貯金을奬勵코하고組合員에게貯金을奬勵키로하고組合員이新築事務所에올째에는반드시念貯金』이라고名稱下에組合員十錢以上의金額을預入하기로하얏다더라(金浦)

中毒者로窃盜

일뎡한주소가업시 도라다니던모르히네)중독자인 조성칠(趙星七)(三녕)은시내각처에서 물품을수약이 빼여원어쳐의 물품을수한사실이 발각되여 서대문서에서취조를 마치고 지난십일일에검사국으로압송되엿다고

集會

◎江華公普敎員轉勤 吉祥面公立普通學校에서多年敎鞭을잡고잇든劉泰玉氏는喬洞公立普通學校女子部로轉勤하고代로高野千代氏가來勤케되엿다고(江華)

◇消費組合總會 仁川에잇는朝鮮物產消費組合에서는今十四日下午七時부터臨時總會를市內龍岡町以友俱樂部內에서연다고(仁川)

謹告(긔념품배달에대하야)

본사 긔념품은 추첨한결과 각각 당첨하신이들 조사하야 이미 전부 배달을 마첫스나 다수한긔념품을 배달하는중에 착오루락이 업다하기 어려운즉 만일 당첨되신이로서 배달에 루락 되신이는 면화(光化門三七四)로나 엽서로 당첨 등수와 번호와 주소를 통지하시면 곳 다시 조사 배달하겟습니다

朝鮮日報社

斯世斯人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要氏名住所明記

◇濟州島西中面泰興里康熙玉은 今年十七歲의未成한나으로京城에와서 螢雪의功을닥고잇다가 身數가不幸하야 지난五日에 內資洞엇던寄宿舍에서萬里가든前程을남겨두고다시오지못할길을 떠나게되엿다

◇그의父親康晉祐는 이놀나운消息을듯고 京城에달녀와서屍體를運搬하게되엿스나 鐵道와汽船으로 運搬할資力이업슴으로 仁川에가서 木船한隻을빌기로하엿다 그러나그木船이京城에들어오기까지에는 여러날을 기다려야될터인데 主人집에서는여러날동안 집안에屍體두기를 願하지아니하엿다

◇그래서康晉祐는 죽은아들의 동모學生과協力하야 屍體를 漢江가에運搬하여노코 쌀쌀한江바람에 진철이를치면서屍體엽헤서 經夜를하기로하엿다

◇그네들은 屍體를江邊에노코洞里에들어가 鐵絲와白紙를사가지고 路上에쭈그리고안저紙燈을만들고잇섯다

◇마침 그쌔에 거긔로지나가던사람은 그光景을異常히녀여 그하는일이무엇이며 엇지한사닭을 仔細히물은뒤에그는親切히 말하엿다 死者는이미죽엇거니와 生者는살고보아야될것아니냐 그屍體는 江邊에나의康間이잇스니 그곳에殯殿하고 君等은 나와 同行하자하야 龍江面土亭里一〇七番地自己집으로 다리고갓다

◇그집은 穀物魚鹽柴炭을 都賣하는집이며 主人은趙德心이라는사람이엇다 그는勿論 몃칠동안厚待를밧엇다

◇이이약이를늣을쌔에 나는넷이약이를듯는것갓다 暗黑한겨울의江邊 屍體를압두고 故鄕을向하는 나그네 木船을기다려 露天에서經夜하라는 그비들 이러한것은 모다 몃世紀以前에나 잇슬즉한일이며 趙氏의 싸뜻한人情은 더군다나今世의人이라 생각할수업다

◇人間의 싸뜻한맛 부드러운맛이잇다하면 그런한곳에서如實히發見할수가잇는것이아니냐 나는無量한感慨를늣기며現世에도 오히려 이러한場面이잇는것을紹介코자한다 (目睹者)

奇人奇緣 (16)

金浪雲 譯 盧心汕 畵

二、의외의편지

이아던동안에 다른사람은 엇더케지냇나 바사는 리씨부인과 차즈며 지냇다 상호는 인도에서 민씨부인틈에서『흥흥』소리를 모든일을 착실하게하야 모친에게오는편지를 보아도 상당히사람노릇을 하게된줄을 알수잇섯다이와반대로 호주에잇는 창배는돈말뇌에는 자긔부친에게 편지를안는다 편지할쌔마다 그주소가변하는것을 보면조곰도 자리가 잡힌것갓지아니하나 종이상한것은 써난지여섯달쯤 되어서여회(貞姬)라는안해를어덧다하는편지이엇다 물론 호인하는것은 아니오나 키는 한푼도 구경치 못하엿습니다 이번에도 먹을것도업시 오래나가잇는동안에 창배가죽엇다는 것을 광산국장에게서 알앗습니다 창배는커에게대하야 낫븐남편입니다 커는커의 녀동생이 음악학교에서 밧는월급으로 목숨을부지하오나 동생도지금은 면직이되고 또커의병이낫기컨에는 다른직업을 붓들수도 업는형편이오니 아버님이 도아주시지아니하면 병든 그대로 굶어죽겟습나이다 굼머죽는편이나홀지도몰으옵니다 병석에서 글시도란삽하고 사연도잘못된것은 용서하여주시압소서 (김뎡희)

이는참으로 쯧밧게일입으로 박사뿐만아니라 온식구가 모다놀랫다 그중에도 박사는『흥흥』하는소리도 찾지못하엿다 집안에서는 여러가지로말이 잇섯는데 민씨부인은 편지도 이러케잘못쓰는것가 아마교육을 밧지못한천한계집이라고하고 춘자는 벌서부터 김가노릇을하며 아버님이라고하는것은 례가 업는계집이다

에게서 두번재편지가왓다 이번에는 병도다나혓는지 글시도 밝가티 말이든지 아조딴사람이하야 민씨부인조차 홀뽏데가업섯다 처음에무사하게 녀아를나혓다는말을쓰고 그다음에 보내주신돈이 너무만타고 감사한인사를하고 그다음에는 여긔서는한사람도 의지할곳이 업슴으로떠나는배편으로 말슴을 조차서어는것을 다리고가서 차차무슨직업을 구하야 그다지폐만 씨치지안켓다고 하엿스며 옷호로

먼저올린편지는병중에무엇이라고썻는지 커노 긔억하지못하오며 아마버릇업는 말슴을 사뢰엇슬줄로새삼스러히붓그럽게생각하옵나이다 모든것을 다신명과가난으로 인하야그와가티 된줄로 널리용서하시옵기바라옵니다

하고 파면녀자다웁게썻다 민씨부인은 박사가보이는 이편지를 바다들고『이만하면 훌륭한교육을바닷겟다』하고 중얼거렷다

이것이 이『긔인긔연』의 첫막이다 정말이야기는 이다음부터 시작된다

라고하얏다 영자는의학을 배우기위하야 『쿈돈』에사는 자긔형 정사의집으로가고이집에는업섯다 민씨부인은 오백원만보내도 만타고하고 춘자는이백원 더보낼것은업다고하엿다 그러나 참으로자비한마음으로 뎡희의 신세를불상히역여이 는이는 박사이엇다 박사는 『창배의안해이면 내며느리고그의자식은 나의귀여운 손자아닌가』 하고사천원을보내며 『어련것을다리고 영국내집으로 오너라』 하고답장을 하엿다 오라고하는것은 얼마나 친절한말인가! 춘자는 매우골을나엇스나민씨부인은 곳박사의방으로 뛰어가서 이집안에서 자긔혼자는찬성이라고말하고 『그러코말고요 당신으로서인색한일을 하여서야 되겟습닛가삼천원은 보내야하지만 사천원은더군다나큰은혜입니다』 하고발녀마치엇다이러케하면만일자기가목뎡을달하지못하고이집을떠나게되더라도 자긔의 용돈이늘기는 할지언정줄지는 안으리라하는것이다 얼마지나서 뎡희

대돈이만히들엇스니 돈을 보내라는편지이엇다 그뒤에 또온편지에는 자긔안해가 태중이니돈을보내라고하엿다 엇더한 녀자인지는몰으나 창배의 안해로서는고생이 업스리라 고아주머니되는 두부인은 이야기하엿다

그런데 어예한가지 놀라운일이생겻다 어느날박사에게로 호주에서 새암엇케 선둘뎐(?)편지가왓다 글을것도업시 누가죽엇다는부고이다 또한창배의 필적이아님으로 뎍창배가죽지나 안햇나하고 쯧디보즉 팔도시원치안코굴시도 시원치안케『아버님컨에 머두리로부터』하고이러케써

잇섯다

가티진(瘴瘧)을맛나서뜻밧게 커의남편창배는 일하러 갓다죽엇습니다 커는지금 만삭이온데빈궁이 매우어렵게 지냄니다아버님께서는 매우 인자하시고 재산도유여하다고 컨부터 창배에게 들엇습나이다 원컨대 커와엄마안가서 나케될어린것을 위하야 도아주시압소서 커도 창배에게 여러번돈을 보내신것을 몰으는

멍텅구리 헛물켜기 (34)

빙판

(一) 칼표를 사가지고 (二) 세관이 무서워 (三) 어름을타고 건너오다가 (四) 밋그러저서 또경을첫다

婦人靈藥 金剛山精力

가다업서지며、아모리누른얼골이라도도화색이나타남이다、여러가지부인약에실패하신부인은 안심하시고、여러부인을 위하야생긴 (금강산정력)을속속히잡수시고평생의근심되는남여러가지병을다업새시요

◆ 명 가 일개월분 五원

京城貞洞一番地ノ一 (뎡동一번디의一) (리화학당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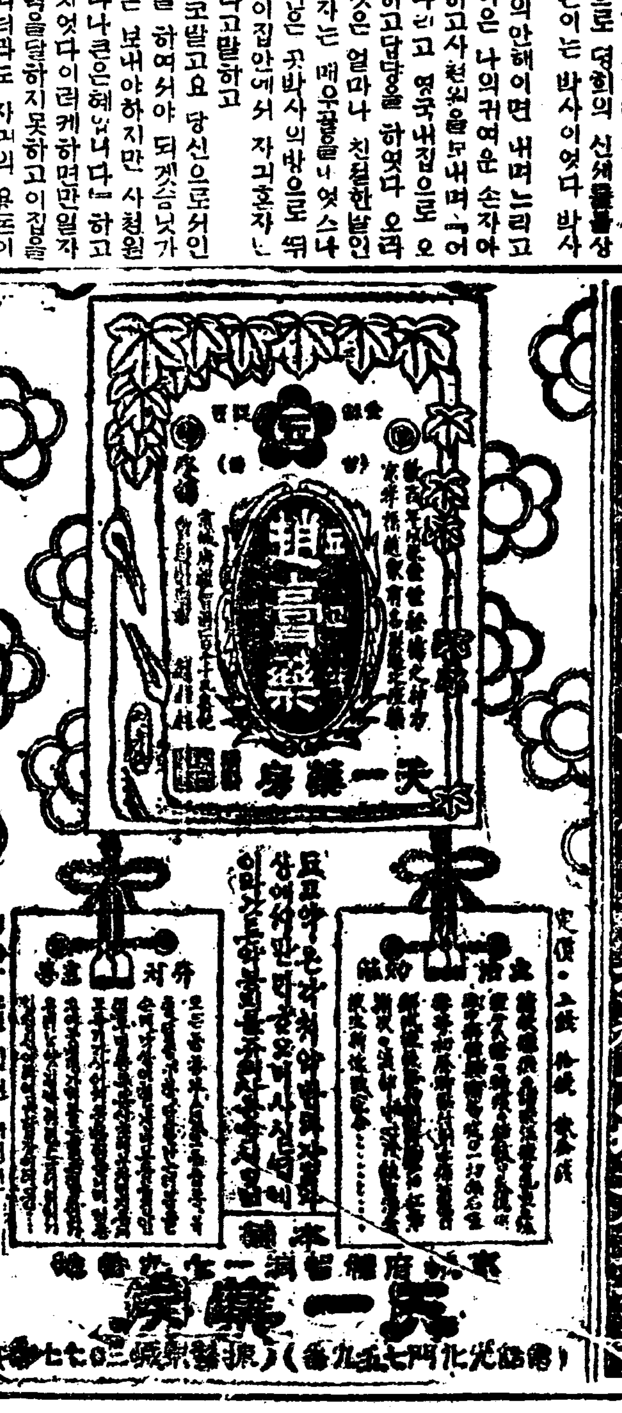
大陸製藥公司 (대륙제약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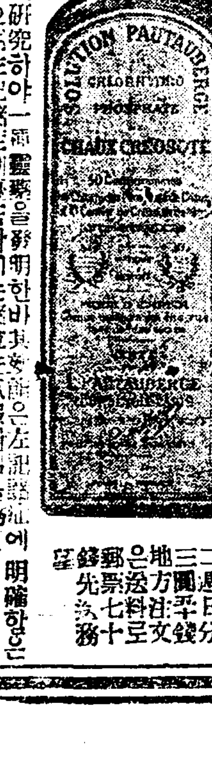
◎ 부인은자서히보시요?

평생의모든、근심은、봄눈슬듯다업서집니다. 귀동자를나시지못하야근심하며、일반냉증과경도가고르지못한데. 잔허리가압흐며、경도할째에아래배가압흔데ㅣ모다 백발백중신효합니다 일개월만복용하시면아모리쇠약한부인이라도몸이건강하여지고、추운겨울에츠운줄모르며혈분이조와지며、싸라서、피부가윤택하야살이보드려지며얼골에 도화색이나타나얼골이검고누루고자긔가만이잇는것은、홀연이다업서지고、참으로、놀날만치 게곱고묘한얼골이됩니다 몸이쇠약하야、얼골이말너ㅣ죽은쌔、지미、가안고、마른보즘이생기며、검어지고누러지난것을분을바른다미안수를바른다、죽은쌔업서지난약을바르다하면엇지얼골이고와지겟습닛가、생각하야보십시요사람이병이잇서알으면、얼골이못되는것을아시겟지요ㅣ속에여러가지병으로하야얼골에、자연이、나타나는것을、무엇을바른다고되겟습니가、깁히생각하야보시요ㅣ이로부ㄴ(금광산정력)을일개월부만복용하야보시요ㅣ냉증과、잔허리압흔것과경도가고르지못한것과、경도할째、아래배압흔것과경도가고르지못한것이봄눈스러지듯다ㅣ업서지고수태치 못하시는부인은놀날만한

各種書籍을俱備하고正當한價格으로都賣散賣하오니注文하시요

京城蓬萊町一丁目七十 新舊書林 振替京城一五五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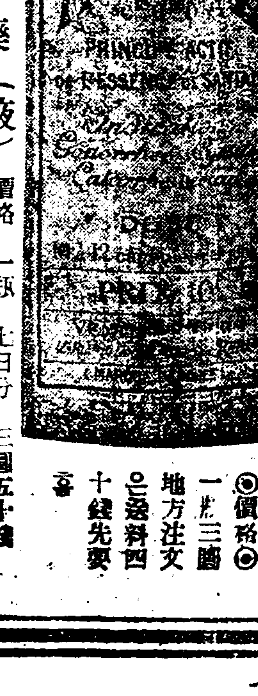
佛蘭西最新發明 肺結核 (不足症始初의 呼吸器管病의) 靈藥

方名 솔뤼시옹 포또베르스 Solution—Pautauberge

佛蘭西에서高名한醫學博士가研究하야 自然試驗하시는諸位로實證되겟사오며 左記諸症에 肺結核의初期、吐痰見血、肺尖加答兒、慢性氣管支、食慾不振、久年咳嗽、喘息、逆氣등諸症에 明確하오니

佛蘭西에서此藥이發明以後로歐洲全世界가服用하고 世界의衛生을爲하야共益케되者ㅣ라

◎價格◎ 二週日分 三圓半 地方注文은送料七十錢 郵票로先送要



佛蘭西에서最新發明

○癩疾藥 方名(알에올) ARHEOL

佛蘭西最新發明 保血에即効藥(液) 佛蘭西最新發明 咽喉及咳嗽에即効藥(丸)

價格 一瓶七日分三圓五十錢 地方注文은送料先送을要함 七十錢
價格 一瓶七日分二圓 地方注文送料四十錢先送을要함

朝鮮總代理店 京城鍾路一丁目五五番地 (電話光局九九五番) 大昌洋行

天氣豫報 今日晴一時曇

十一日附道告示第七十六號로다시京城府의接近地及郡部의一部

民衆에게配付하야一層對衛生思想의普及에努力코저幾日來準

觀察圖를組織하야去十二日午前入時에一行十三名이郡林業技手

鐵道直營과 金融界

鐵道直營後의金融界의影響에就하야關係方面을調査한바에依하면京鐵局의現在銀行預金은朝鮮銀行以下合計約三百萬圓假量이오此外殖產銀行의債券二百萬圓을所持하얏다京鐵局側으로云하면此가第一處分을感하는바이니聞한바에依하면來年三月三十一日이

期限 임으로困難은無하고目下는年度半과不景氣로預金의最少한時임으로年度始에建設改良資金을受入한時와年度末의納付金의蓄積된때에增加될을例하야七八百萬圓으로부터多한時는一千萬圓을突破하얏섯다直營後는朝鮮銀行이此를一手로取扱할것은勿論이나此反面에는國庫金以外의

社員 의身許保證金及積立金의處置如何는反히銀行預金은增加되리라한다此二個를合한約七百三十萬圓이이대로一個의貯金組合으로存續되야一銀行에預置케된다하면確히當該銀行은預金의洪水를襲함과如한狀態를呈할것이다假令相當히引出한다할에도五百萬圓假量이殘存할것이다此七百三十萬圓은目下約四百萬圓을咸鏡線

建設 에立替하고其他도京鐵局의運轉資金으로하야相當히使用되는것이다直營과同時에모다償還될터이오或은地場銀行에分割하야預置할는지不知하나資金流出의懸念이有한日本의銀行支店에는預入치안이리라더라

못하것고其結果는或은一段金融界에도不少한波動을與하지안을外하고漸次憂慮하는者가有한데此

對策 으로는一面各金融業者의自覺自制에依할것과一方各銀行이如斯히預金利率을無謀히引上하면서尙且競爭吸收치안이치못하는것은上級銀行되는鮮銀의再割步合이比較的高率임으로

預金 에依하야此를個割外에也道가無함으로因함인바其緩和策으로는鮮銀의再割步合도一般大勢에順應하야相當히引下를行하야緩和方策을講할必要가有하다고說하는者도잇는同時에一方에는單히朝鮮銀行의再割步合이라稱하나

鮮銀 으로는資金關係로因한것으로現今과如한情況으로는順調로正貨準備가行하면別問題로하고限外發行에依할時는發行稅로七分의徵稅를受하는關係上單純히는云키難하고各銀行에서도或程度外지는定期預金의

利率 을引上하드라도假히再割을受하는것보다도採算上讓신有利할것임으로如斯情勢를하는것이다與히其緩和策으로는鮮銀의再割步合의引下를行커前

取引所令 決定在近

朝鮮의取引所令發布는新히設置하는것과異하야旣히開設許可된仁川米豆取引所의取締上에나又各地의現物市場의取締監督上에도痛切히必要를感할뿐아니라今日外지取引所新設

許可 의候補地로指目되는地方에서도其內容이不明하니만큼一層虎視耽耽한者가有하야其進步如何에就하야는多大한注意를拂하는中이니聞한바에依하면其後同令의內容은關係局에서完成되고唯上司의意見에依하야決定할뿐인데同案이參事官室其他에出現치안는것은一面아직關係局間의

諒解 가無한줄로思料하는者가有하나要는書類로써贊否又는修正을求할時의諒解成立後로其際에는單히字句의修正又는法律로서의機能의研究에止하는것이오此보다先히上司에서果然如何한意見을有한者일外關係局으로는新設候補地와如한도充分한

調査 와研究에依하야大略決定되야總督並總監의此에對한意見에依하야決定되기外지進步된것이오勿論關係局으로는市場及仁取其他에監督上에도最히必要를感하는中임으로一日이라도速히發令될事를希望하는模樣이나單純한

理論 만에依하야斷定키難한關係를有한問題인만큼總監히取扱키難함으로自然遲延되는것이나總督總監의肚裡도大體決定되얏슴으로近近히決定함에至하리라더라

鮮銀再割步合 引下如何

日本의一流銀行에서는最近遊資增加의結果預金利子並貸出金利의引下說外지잇는此際에朝鮮各地銀行間에는激甚한預金爭奪戰[illegible]히一般金融界의惡影響에逆[illegible]을呈하야可恐할結果[illegible]것고同時에[illegible]한打擊으로[illegible]고云치

에先히鮮銀의發行稅를規定에依하야는最少限五分外지引下를行하야

一般 의緩和策을講할必要가有하다고하는者도잇다何如間預金協定率이亂雜케되는것은如實의傾向으로此에對한銀行集會所와如히相當考慮를拂할責任이有하리라더라

產金推移

京城商議調査大正元年以降十二年外지의十二個年間의朝鮮及日本의產金額은日本二萬三千九百四貫, 朝鮮一萬二千九百五十八貫合計三萬六千八百六十二貫으로日本은大正元年以降九年外자는漸增傾向을迴하얏스나十年으로부터는多少衰退를示하얏고朝鮮은三年以降八年外지는產金事業이旺盛하얏스나九年以降最近外지는不振狀態를繼續하얏다今에各年次別로產金高를示하면左와如하더라

年次	日本	朝鮮
大正元年	一,三七三貫	九八六貫
同二年	一,四七七	一,三〇〇
同三年	一,九一七	一,二八三
同四年	二,二三三	一,四四六
同五年	二,二六六	一,六三〇
同六年	二,三六〇	一,三六三
同七年	二,三三一	一,一一七
同八年	一,九二八	七六六
同九年	二,〇五八	七五五
同十年	一,九六七	六六九
同十一年	二,〇〇一	八〇三
同十二年	二,〇九九	九六五
計	二三,九〇四	一二,九五八

鐵道貨物續增 米價高가大原因

鐵道貨物은米價高와金의騰貴에依한鑛石의出廻漸增等으로次第로增加되엿다最近의鐵道收入은一日七萬圓臺로六萬圓臺에落하얏스나昨今은八萬圓을超함이普通이다

各線 으로부터의到着貨車로多忙한터이니今夏에封鎖된貨車六百輛은그半數三百輛도아직鮮키에不至하얏고鐵道의輸送能力으로말하면餘力이充分히잇다十一月의鐵道沿線穀物在貨는四千二百餘噸으로釜山運輸事務所管內의千噸、大田管內의千三百噸等

南鮮 地方米의主產地가出廻旺盛期로되엿고그다음으로는京城管內의九百噸이나平壤、安東管內는漸하야各四百餘噸이잇슬뿐이다今後益益在貨는增加되리라고觀하나一方鐵道도臨時列車를派遣하야輸送能力을擴大케할지나지금은

滯貨 等의掛念은업다米의出廻에此하야는要컨대相場만으로價格을維持하면繼續하야出廻할것을觀測되더라

鍾紡工事年內着手

東大門外崇仁面新設의鍾紡絹系工場은旣히小杉組에게地均을請負하고去十日에建築工事入札의事定이엇스나遲延되든設計가完成된結果이다그러나年內에는工事에着手할것은無違한터이다

防穀令解除로 滿洲粟低落

勸信會社入電에依하면昌圖粟市勢는去十一月三日四圓換算百斤十圓三十九錢이든것이十二日은防穀令解除의關係等으로八圓四十五錢으로二圓顯低落되얏는데此의運賃一圓七十錢稅金五十錢을加하야京城着元價十圓六十五錢으로換算케되엿다此에對하야某當局者의말에依하면滿洲粟市勢는當分指定가如히品質에依하야加減할으로外實物을見치안으면確實한市勢를知할事는不能하나何如間低落한것은事實이오尙히朝鮮에서는아직地方의引合은開始되지안엇다云云

十月末 全鮮金組帳末

殖銀調査十月末現在全鮮金融組合聯合會帳末은各組合으로부터預金이一千百十二萬六千二百八十二圓六十九錢으로十五日現在에比하야十六萬八千三百三十六圓六十六錢의減少이오前年同期에比하면三百六十三萬二千七百二十圓六十九錢의增加이다又殖銀其他에聯合會預金은二百八十九萬六千二百十七圓五十八錢으로十五日에比하야四十四萬三千五百四十五圓九十四錢의減少이오前年同期에比하야百五萬七千二百八圓七錢의增加이더라

明年度豫算과 建築界는悲觀 土木界는幾分樂觀

明年度朝鮮豫算中建築費로는二百五十萬圓을計上하얏슬뿐으로此中京城府廳舍八十萬圓朝鮮神社四十萬圓大學三十萬圓을控除하면殘額은僅히百萬圓强에不過하다今日外지旣히悲境에沈한建築業者는民間建築事業에도可望이업고官廳方面도如斯한狀態임으로絕望할뿐이라고某當業者는말하얏다玆에

問題 가됨은下級從業者이니卽勞働者를救濟할일로救濟와人物賃低와材料低에從하야工事를할도頗히有利한것이다下岡總監과如함도이에鑑하야朝鮮產業開發의意味에서

治山 治水事業에全力을注하고水利組合其他에殖銀東拓으로하야금三千萬圓總督府로하야금低利資金四百萬圓及鐵道建設費一千萬圓의投下를計劃하얏슨즉土木界는建築界에比하야幾分樂觀할것이잇다

殖銀公共資金 調達方法如何

殖產銀行은豫히總督府로부터十三年度殘期及十四年度用旱害救濟及一般公共貸出資金으로二千五百萬圓의新資金準備의交涉에接하야邀히前般의有賀頭取가渡東하얏스나有賀頭取는渡東中인下岡政務總監、草間財務局長의斡旋盡力과相俟하야大藏省日銀並東西金融市場間을奔走한結果二千五百萬圓의新資金融通手配는이에完全히成立되엿다한다資金不足인半島財界에

巨額 의新資金이準備케됨은一大福音이라新資金은左記方法에依하야調達되리라한다

金七百萬圓 恩賜公債賣却金
金八百萬圓 預金部로부터融通
金一千萬圓 普通殖產債券으로調達
計 二千五百萬圓

其中七百萬圓의恩賜公債賣却金이라함은併合當時下賜된恩賜公債에依하야成立된公共團體恩賜事業이該

公債 를一段日銀에賣하고其賣得金으로써殖產債券에應募形式에依할것이나此에依하야殆히死藏同樣의狀인恩賜公債는비로소活用될것으로一方恩賜公債事業도年年의經費는年五分의公債利子로써

支出 되던것이나殖產債券利子는年五分五厘인즉五厘만큼利子收入이增加케된것이오公債事業殖銀共히利益할所謂一擧兩得의結果를呈한것이다預金部融通資金은五分五厘의低利資金으로亦是殖產債券引受의形式에依한것이다

『세멘트』强調

『세멘트』는從來頗히亂調로一時는競爭의結果一樽三圓五十錢外지下落하얏스나其後各會社間에都賣價의協定이成立되야爾來此協定은嚴重히遵守되고現在는在荷가豊富하나價格은比較的强調이나此는需要가高하야現在의協定市勢를破키不能함을因함이라더라

東拓總裁及尾崎理事來京

東拓京城支店駐在尾崎理事來輸에依하면尾崎理事는二十日頃에來京하것고又久保田東拓總裁는月末頃來京할터이라더라

鐵珠板

▲鐵道直營으로 鐵道側預金은鮮銀에서一手로取扱할模樣이오 그뿐아니라 鐵道 總督府內의融資者를 東拓等에分稍하면 淘汰等에官僚의勢力이隱然增加될듯▲鐵道直營도明年度부터는實施될터인데最近의鐵道貨物은益益增加되고 金價의昂騰으로出荷前途가有望타고 마지막으로滿鐵의利益을넘겨주는意味인가▲東三省의防穀令解除로 滿粟低落 輸入前途好況이고보니其次에는朝鮮米日本移出을增加하자고떠들것

期米

仁川期米 (十一月十三日)

前場(續高) 後場(閑散)

昨後場은阪地初付二十八圓八十四錢인又復高報를接하고中限은三十三圓五十錢先限은三十三圓五十四錢에場을始한後阪地二節七十一錢으로三節七十四錢인小落을據하고中限은二節四十三錢先限은三四節共四十九錢인二番同價를示하더니阪地五節八十錢인反高와共히中限은五十錢先限은六十四錢으로跳返하야小强히場을止하엿든바今前場에至하야阪地初付三十八圓八十九錢인昨止價보다一丁反落의報를據하고立會하니

▲第一節 當中兩限은不成이나 **先限은三十三圓六十一錢** 인昨止價보다三丁低價로初付하다▲第二節 阪地二節六十八錢인反落을據하고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四十九錢으로又復反落하다▲第三節 阪地三節六十二錢인大丁反落을受하고當限은三十四圓八十錢中限은不成이며先限은三十九錢으로續落하다▲第四節 阪地四節亦六十二錢인情報를伴하고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四十七錢으로跳返하다▲第五節 阪地五節六十四錢인二丁小高를報하고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三十三圓三十錢先限은四十九錢으로反騰하다▲第六節 阪地六節亦六十四錢인情報를受하고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三十九錢先限은四十二錢으로反落하다▲第七節 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三十九錢으로又復小强하다▲第八節 阪地七節六十一錢인情報를伴하고場面은案外硬張하야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五十五錢으로奔騰하다▲第九節 阪地八節六十二錢으로九節六十一錢인情報를受하고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四十九錢으로小弛하다▲第十節 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亦四十九錢으로場을止하니高低의差가二十二丁이더라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仲買店 電話長 三一四 一五一〇 五番

前場

寄當中 ― ― ―
止當中 ― ― ―
一節 三三,六一
二節 三三,四九
三節 三三,三九
四節 三三,四七
五節 三三,四九
六節 三三,四二
七節 三三,三九
八節 三三,五五
九節 三三,四九
十節 三三,四九
賣買石數 本期總高

後場

寄當中 ― ― ―
止當中 ― ― ―
一節 三三,[illegible]
二節 三三,[illegible]
三節 三三,[illegible]
四節 三三,[illegible]
五節 三三,[illegible]
六節 三三,[illegible]
七節 三三,[illegible]
取組高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數字的으로본 前途供給如何

各地市場뿐아니라一般的으로重要視하든第二回預想發表는엇더나나人氣를集中케하엿스며商戰에疲弊한頭腦를煩悶케하엿는가?去十二日에야비로소農商務省에서發表하엿는바第一回豫想보다六十九萬四千七百九十七石의減少인五千七百四十四萬四千六百七十三石이라 此를發表하기前부터減收의悲觀으로各市場은同一步調로買煽하야阪地는三十八圓九十錢當地는三十三圓六十四錢인本月中最高價를演出하엿스나今朝에入하야阪仁共히讓頭치못하고幾分低落의勢를作한은旣히高價를一巡하엿슴뿐아니라約七十萬石의減收로는또한買進할餘力이無함과如하다然而昨年產實收高五千五百萬石에比하면約二萬石의增收를示하나第三回의實收發表가何如할는지또한疑問이업지아니한바例年과如히第二回의豫想보다減收나아니될가하는憂慮도亦不無이며十一月一日現在의殘存米約四百五十萬石의數字를加算한다할지라도需給上樂觀할餘地는無하다고

米豆餘話

▲許可申請中에잇든仁川現物市場建設은未幾에總督의許可를得하게될模樣이다▲許可하겟다는總督의內意와其他注意에對한書類는벌서仁川警察署長의무릅밋헤潛在한模樣이라고▲果然仁取와勢不相立의形勢로잇는그問題가結局은仁川穀物協會가勝利를告하게되는同時에仁取市場에는幾分障害가업지안으리라고

殘存米는何如

十一月一日現在全國殘存米에對하야는아즉確實한數字를發表할수업스나食糧當局의槪算하는바에依하면去七月一日現在二千三十九萬石에서其後朝鮮米六十萬石臺灣米八十萬石外國米百二十萬石의輸移入을加算하야二千二百九十九萬石인데此에서爾後四個月間一千八百萬石의消費量과輸出高三十萬石을控除하면結局四百六十九萬石의殘米를示하게되엿다一個月消費高四百五十萬石으로推算하면第二回預想五千七百餘萬石으로는明年度端境期에入하야約二百萬石의不足을告하게되는바勿論前途供給의悲觀은免치못할것이며따러서外米의輸入과朝鮮米의移入을促進치안으면아니될模樣인데果然凶作地인朝鮮米의賣出이何如할는지?越年後春高價는實로標準할수업다고商勝이區區

大阪期米 (十三日)

	前場		前場
寄當中	[illegible]	止當中	[illegible]
一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九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十節	[illegible]

	後場		後場
寄當中	[illegible]	止當中	[illegible]
一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各地期米比較 (十三日)

	昨後止	今前付	比較
大阪	[illegible]	[illegible]	一低
兵庫	[illegible]	[illegible]	一〇低
桑名	[illegible]	[illegible]	三高
下關	[illegible]	[illegible]	五低
東京	[illegible]	[illegible]	八高

株式

京取市場 (十三日)

前場諸株小高 京取保價

今前場은大新阪付가三十錢高로七三圓七入電後阪步小幅에當地는▲大新이五十錢高로七三圓을突破하야七三圓四初付나一二十錢相步로七三圓一에大引되여賣買三百▲京取는猛烈히賣하든吉見의大口가엽슴과買方의防買等으로더低落치안코十九圓에始步十八圓九終步로賣買百十▲仁新이二十枚賣買로二八圓二初付▲安取亦二十枚賣買로九圓三에初付되엿고其他不成이엿는데前價比較는▲京取保價▲仁新二十錢高▲安取十錢高▲大新二十錢高

大新續騰至難乎

再昨前場阪止가中國動亂再燃掛念等으로七二圓二를劃되엿後昨前場에는七二圓二로反騰이엿슴이後場에는阪當이長短期一齊暴騰하다가結局七二圓七大引이되엿슴으로短期大新도一圓六十錢高로七三圓三初付임으로當地亦一圓高로七二圓九에大引되엿다然이나人氣는依然沈衰하얏고前途에對하야樂觀하는者別로업는模樣이엇는데今朝勢는阪地가暴騰後强堅한步調로當地七三圓臺突破하야잇슴으로當地七三圓臺를持續이疑問이나今次大新暴騰은鍾紡을中心으로하야他의諸株高에追從됨과新規로大口者가買進함에因함이라하나阪地와東京市場에서는依然히實質의優良株는買하고實質이不良한株式은賣하는터이에도大新에는取引所에關한諸問題로嫌氣가生할으로逐日買散하며何人도不顧하는凋落時代이엇슨즉大口者出現은可疑이라아니할수업고從하야七十三圓臺保持가疑問으로反落이必現하리라推測된다然則大新은大關門에外지慘落하면寧히七十圓臺로말하落後堅實한步調로上進하는時가眞正한相場味가잇는때로안다

『스틸』株暴騰 (紐育十一日發)

유에스、스지ㅣ르(米國鋼鐵)會社株式은百十五弗로本年中의新高價를示하야全米株式市場各部도協調를保하얏다

京取長期賣買及標準價 (十三日)

株名		前場當限	前場先限	後場當限	後場先限	株名		前場當限	前場先限	後場當限	後場先限
京取	寄/止	―	―	―	―	寄託	寄/止	―	―	―	―
仁取	寄/止	―	―	―	―	朝鐵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鮮鐵	寄/止	―	―	―	―
鮮銀	寄/止	6400	―	6400	―	一新	寄/止	―	―	―	―
同新	寄/止	1500	―	1500	―	二新	寄/止	―	―	―	―
殖銀	寄/止	4800	―	4800	―	三新	寄/止	―	―	―	―
同新	寄/止	1180	―	1180	―	四新	寄/止	―	―	―	―
商銀	寄/止	3400	―	3400	―	瓦斯	寄/止	―	―	―	―
一新	寄/止	―	―	―	―	京南	寄/止	―	―	―	―
二新	寄/止	―	―	―	―	金剛	寄/止	―	―	―	―
漢銀	寄/止	―	―	―	―	紡織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韓銀	寄/止	―	―	―	―	東亞	寄/止	―	―	―	―
東拓	寄/止	3930	―	4100	―	同新	寄/止	―	―	―	―
同新	寄/止	1800	―	2050	―	動信	寄/止	―	―	―	―
鮮土	寄/止	―	―	―	―	朝信	寄/止	―	―	―	―
朝紡	寄/止	―	―	―	―	穀信	寄/止	―	―	―	―
鮮毛	寄/止	―	―	―	―	滿取	寄/止	―	―	―	―
京電	寄/止	―	―	―	―	李信	寄/止	410	―	350	―
同新	寄/止	―	―	―	―	安取	寄/止	―	―	―	―
電興	寄/止	―	―	―	―	大新	寄/止	―	―	―	―

暴騰은金利引下 限月問題有望等으로

十二日株高에就하야某所入電에依하면大阪은限月아明年四月一日로부터短縮키로되엿는故로反對運動의奏效曙光이現함과日露交涉이그리悲觀할것이아님으로東京이高함에因함이오東京高는日銀利下說이잇는結果이라더라

京取賣物停頓 更崩이엇슬가?

猛烈히賣進든吉見店도昨後場大新高로賣氣가弱한인지大新賣物가업서二十錢의反高를呈하얏다今朝亦大新硬調에付止不成으로無氣力하게十九圓一步로다시十八圓九로保價이엇스니目先이어더할가?京取는粟言하는바와가티十八圓臺는人氣로보면高價인感이잇는것으로多數는十五圓即捕込額에外지慘落을聯想하고機만보아賣叩할形勢로今次도大多數의賣라할수업는吉見賣로十八五의新低價에落케하얏섯다그럼으로京取도更崩이必然이리니大勢가然하고또한大口賣者가潛在하다傳하는現狀인外달으로如此히推測된다

後場奔騰 大新七四圓五 拓新二十圓五

今後場은大新拓新仁取가暴騰을演出하얏슴으로大新阪付가五十錢低로七三圓二入電後阪步不變이매當地亦▲大新이十錢低로七三圓初付後二十錢往來이엇슨데阪步가漸强하야遂七四圓臺突破로 **七四圓臺突破로四圓漸騰되어七四圓五에 當地도買物이輻輳하야 奔騰임** 七四圓五에大引되엇고賣買千二百▲京取는不變으로十八圓八初付로小高하야十九圓大引이엇고賣買百十▲仁新은二八圓에小低로初付되며媒介十▲仁取는付止不成으로八八圓에高步하야賣買十▲拓新이二十圓五初付로賣買가十이엇스니近來에업는大商狀이엇다前價比較는▲京取十錢高▲仁新二十錢低▲仁取一圓高▲拓新五圓八十錢高▲大新一圓四十錢高

錢高

東拓新舊奔騰

新總裁歡迎으로前日에長期標準價가暴騰된東拓新舊株는今後場에五千萬圓低利資金問題等으로더買氣를刺戟함인지長期標準價는舊株가一圓十錢暴騰으로四十一圓新株가二圓暴騰으로三十圓五十錢이엇고短期新株는吉見賣有田買十枚가十四圓七十錢이던 **前價보다五圓八十錢 大暴騰으로二十圓五十錢** 에初付되엿섯다

逆日步各五錢增

大新은株不足이百七十이激增하야逆日步가四十五錢으로五錢이增하고鍾新亦不足이二百九十으로百九十增이하야逆日步가五十錢으로五錢이增하엿다

諸株步調 (十三日)

前場
▲京取 一九〇〇 ― 一八九〇 ―
▲大新 七三四〇 ― 一〇 ― 三〇 ― 一〇 ―

後場
▲京取 一八八〇 ― 二〇 ― 一九〇〇 ―
▲大新 七三〇〇 ― 一〇 ― 一〇 ― 三〇 ― [illegible]

後場大新賣買

賣買高千二百枚
賣方白井田中李寶成淸新田二百五十定岡二百金秀白樂二百
買方吉見六百成淸南市川

代引算定日步

株名	算定	代引	日步
京取	一八〇〇	一〇〇	
仁取	八八〇〇	三〇〇	一〇
仁新	二八〇〇	五〇	一〇
朝紡	六〇〇〇	―	五
鍾新	八六〇〇	逆二九〇	逆四〇
安取	九三〇	逆一七〇	逆一五
大新	七三〇〇	逆六〇〇	逆四五

京取短期

株名	前場付値	前場止値	株名	後場付値	後場止値
京取	―	―	京取	一八八〇	―
仁取	二八三〇	―	仁取	―	―
仁新	―	―	仁新	二八〇〇	―
朝紡	―	―	朝紡	―	―
拓新	―	―	拓新	二〇五〇	―
安取	九三〇	―	安取	―	―
鍾新	―	―	鍾新	―	―
大新	七三四〇	七三一〇	大新	七三〇〇	七四五〇

大新短期取組高

取組高千九百枚
賣方七店 白井三百四十成淸百十新田九百三十定岡百二十金秀二百九十南九十閔二十
買方九店 有田三百二十洪百七十吉見四百六十金龍三十田中三百六十李寶三十白樂六十市川四百六十趙十

短期賣買高 (十三日)

合計 六百八十枚
累計 二六萬二百二十枚

大阪長期株式 (十三日)

	前日後止	前付	前止
鍾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株式 (十三日)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中引 [illegible]

大阪大新步調 (十三日)

▲前場 [illegible] (大引未着)
▲後場 [illegible] (大引未着)

仁川期米 [illegible] 福

最高級エキストラー萬年筆

시방貴下의求한エキストラー一本은在來品보다卓越한最良最廉의眞價를遺憾업시發揮함니다

エキストラー十三號 安全裝置잉크止式에포나이三製正十四金ペン付(軸徑二分七厘丸)市場價格金貳圓五十錢內外의物 (實物大) 大特價金壹圓四拾錢
エキストラー三十號 安全裝置操出式에포나이三製正十四金ペン付(軸徑三分二厘丸)市場價格金參圓內外의物 (實物大) 大特價金壹圓七拾錢
エキストラー四十一號 安全裝置잉크止式에포나이三製正十四金ペン付(軸徑三分八厘丸)市場價格金參圓內外의物 (實物大) 大特價金壹圓七拾錢
エキストラー五號 安全裝置잉크止式에포나이三製二重中金正十四金ペン付(軸徑三分八厘丸)市場價格金四圓內外의物 (實物大) 大特價金貳圓貳拾錢
エキストラー十一號 安全裝置잉크止式에포나이三製正十八金張ペン付(軸徑三分六厘丸)市場價格金四圓五十錢內外의物 (實物大) 大特價金貳圓五拾錢
エキストラー四十六號 安全裝置잉크止式에포나이三製正十四金製輸入ペン付(軸徑三分六厘丸)市場價格金五圓五十錢內外의物 (實物大) 大特價金貳圓七拾五錢

五拾有餘年萬年筆專門製造元

目錄은萬年筆使用者에게必要한萬年筆의選定法其他萬年筆에關한重要記事가記載되엿스니目錄必要한이는新聞名記入하야製作元에申込하시면無代呈送함

注文品

右品을注文時는實良品을撰定하여送付함은勿論이오나特히萬年筆의日常用途並펜先은大中小文字의何를使用함에適합한다고注文書에記入하시면더一層貴意에適한萬年筆을보내드림니다、前金注文은送料無料이며、代金引換은送料二十錢式이올시다其他萬年筆附屬品은無代添付합니다

東京市小石川區原町十二番地
明盛進堂製作所
振替口座東京三八〇〇番
市內本舖直賣店 神田駿河臺[illegible]

大量의主義
最新의設備 豐富의原料
花王石鹸

紳士及學生時計特價提供

懷中時計 腕卷時計
眼鏡銀金 指半金純

品名	價格
十八金片치마寶石十六形	二五、〇〇
銀片치마寶石十六形	一〇、〇〇
니기루片치마寶石十六形	七、〇〇
十八金腕卷치마寶石12形	二四、〇〇
銀腕卷치마寶石十二形	一三、〇〇
니기루腕卷치마寶石十二形	一二、〇〇
十八金眼鏡玳瑁枠匣並	一八、〇〇
二十金眼鏡玳瑁匣並	二〇、〇〇
金張玳瑁眼鏡匣並	五、五〇
純金一匁對五圓八十錢	
男子用四方形半指三匁工料並	一九、四〇
同 打圓形半指 三匁同	一九、四〇
婦人用二回半指 三匁同	一八、九〇
同 菊花高彫半指 二匁同	一六、六〇

市內난電話注文◎地方은代金引換
時計난保險證을金屬은證明書添附
便利와多賣난弊店의特色

BOSHINDANGWATCH&Co
京城鍾路二丁目六番地
普信堂時計舖
電話光化門八八三 振替京城二八五一 主 李桂鎬